朝鮮日報
夕刊
三十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太原學生民衆數千 排日大示威開始

日本人에게家屋貸與도嚴禁

北中工作에大暗影

山西排日風潮激化

【上海廿九日發同盟】太原來電에依하면 今日山西克服記念祭에 當하야 太原學生民衆數千은 二十九日 俄然排日大示威運動을 敢行하야 「打倒日本」을 絶叫하면서 市內諸要所를 遊行하엿다 한다 日本駐外當局은 萬一을 念慮하고 各機關의 重要書類를모아 嚴重保管하고잇다 그리고 事態惡化의 境遇에는 山西省內의 日本居留民全部를 太原으로 集中식혀 保護하기로 準備를 整頓하고잇다

【天津廿九日發同盟】中央軍이 山西에 進入한 以來 同地方의 排日風潮는 激化의 一途를 것고잇는데 特히 中央黨部는 同地黨部에 日本人에게 모든 暴壓을 加하야 居住를 못하도록하고 日本側에 協力하는者는 死刑에 處하라는 過激한 宣傳을 發하엿다고 하는바 從來의 排日과 性質을 달리하는 자못 深刻且 眞實의것이다 今回의 中公司襲擊事件과 如한것은 其片鱗에 不過하고 今後 如何한 不祥事를 惹起할는지도 알수업는 現狀이다 一方 日本側에 對한 中國人의 迫害는 極度에 達하야 日本人에게 家屋을 貸與하는 官吏는 死刑에 處하고 山西의 親日要人인 朱綬光氏等은 山西로부터 追放되엿다 이러한 現狀은 蔣介石氏의 抗日宣傳이 八方으로 擴大되여 冀察政權에 對하야는 逐次로 浸潤하는 傾向이잇는바 北中明朗化工作에 又復暗影을 投하게되엿다

山西要路者 兩書記面會拒絕

【天津廿九日發同盟】太原駐在西南書記生은 事件發生과 함께 山西綏靖公署及 公安局 中國側要路者에게 會見을 要求하야 日本商店襲擊事件에 關한 嚴重抗議를 提出 事態惡化防止를 企圖하고잇스나 中國側當局은 어데까지 面會를 拒絕하는 實情임으로 居留民保護의 自衛手段으로 被害者宅에 巡査를 派遣하야 同家屋正門에 「本家屋은 爾後 日本官憲이 管理함」이라고 貼布하고 同所를 守護하기로 決定하엿다

山西排日激化는 閻氏態度에依存

南京迎合으로自己保全決意

國民黨部活躍도猛烈

【北平卄日發同盟】太原來電에依하면 太原을中心으로한 山西省의 排日空氣가 俄然惡化한것은 今年初 共產黨侵入事件으로 中央導員이 多數潛入하야 暗中飛躍하고잇기때문이다 閻氏도 最初에는 露骨的으로 排日態度를 表示치안헛스나 綏遠方面의 情勢와 軍의 勢力이 浸潤하엿고 더욱 最近에 이르러 蔣介石氏의 閻錫山氏懷柔運動이 猛烈하게되엿는데 이에 伴하야 國民黨部指導强化에 伴하야 排日態度로 急轉回하기를 決意한模樣인데 要컨대 南京迎合에 依하야 自己保全을 圖하려하는것으로 最先 朝鮮人關係에 뒤니어 今回의 綸中公司直接襲擊事件으로 惹起한것인데 今後 太原의 排日空氣의 惡化는 注目되여잇다

太原民衆激化에 特務機關萬一準備

【北平二十九日發同盟】太原來電에依하면 二十九日 太原에서는 光復紀念祝賀키爲하야 午前九時부터 軍隊、學生、民衆等이合하야 六千名이 城外練兵場에 參集하야 各方面의 代表 特히 南京에서 派遣된 黨部指導者의 演說抗日煽動에 參會者는 昂奮의 極에 達하야 午後二時에 至하야 市中에 示威行列을하야 抗日 모로化하얏다 一團은 「日本을 逐하라」고 부르며 或은 「宋哲元은 亡國의徒」라고 呼叫하야 從來日本政府에對하야도 比較的穩健하든 太原民衆이 俄然抗日意識에 불타서 잇는터 如何한 不祥事를 惹起할는지도 알수업는 事態에 이르게된 情勢에 鑑하야 日本特務機關은 西書記生及商議駐在員等과 合議한後 萬一의 境遇에 居留民約三十名을 收容할 準備를 完了하엿다 그리고 特務機關은 如斯한 事態의 發生을 考慮하야 食糧品은 約半年을 지탕할 準備가되여잇다고한다

被害家屋을 日本官憲이管理

【太原卅日發同盟】旣報綸中公司拉致事件은 太原公安局이 何等의手續을 밟지안코 二十六日夜半 突然히 한것으로 右에對하야 太原特務機關長河野中佐와 外務省太原駐在員西書記生은 同夜來 中國側責任者에 面會를 申請하얏스나 中國側은 言을 左右로하야 會見을 拒絕함으로 日本側은 不得已 一時該家屋及家財商品等을 管理하기로 二十七日夜 省政府에 通告하는同時에 正當한 解決에 이르기까지 本家屋은 日本陸軍武官과 外務省駐在員에 依하야 管理한다 라고 大書한 告知板을 該家屋에 걸고 今日에至하엿는데 中國公安局員은 이를 멀리 包圍하고 이에 民衆도 加擔하야 不穩形勢가 아즉 繼續되여 자못 緊張味가 보이고 잇다

政府軍突然反擊開始 到處서叛軍擊破

爆擊機編隊의驚異的活躍으로 首都市民愁眉를漸開

【마드리드廿日發同盟】叛軍의總攻擊을 압두고 政府軍은 二十九日朝來 猛然 反擊을 開始하야 마드리드 西部西南部戰線에잇서 로레혼· 세세나市를 奪還하엿다 赤色義勇軍은 目下交軍과서로 呼應하야 이리에스카스方面에向하야 進擊을續行中이다

【바르셀로나二十九日發同盟】비리알바大佐麾下의 政府義勇軍은 二十九日사라고사北方웨스카스地方의叛軍을 擊破하고 同地方의主邑웨스카스市를 完全占據하엿다고傳한다

【마드리드廿九日發同盟】叛軍의先鋒은 이미 首都의西南十九哩地點에 當하는 크리픈 나발카르네로 間의 道路를 占據하엿는데 政府軍 爆擊機 編隊는 타라베라、세빌리아 叛軍側 飛行機根據地를 空襲하야 格納庫에 爆擊을 加하고 前者에잇서 十二機 後者에잇서 五機 合計十七飛行機를 完全破壞하엿다 政府軍側爆擊機編隊는 다시 西班牙西部카세레스南部그라나다等에 爆擊을加하야 相當한 被害를 주엇다고報道되는데 飛行隊의活躍으로 마드리드市民은 겨우 愁眉를열게되엿다

不干涉委員會後 콤뮤니케發表

【倫敦二十八日發同盟】不干涉委員會終了後 二十八日夜 左의콤뮤니케가 發表되엇다 不干涉委員會는 二十八日本會議에서 伊太利及 葡萄牙國政府가 不干涉協定에 違反하엿다는非難에對하야 檢討한結果 蘇聯代表를除한 各國代表는 右非難은 根據가업다는結論에 到達하엿다 各國代表는 蘇聯政府가 提案한 葡萄牙海口管理案에對하여는 受諾하기로回答하엿다

西法學者團 叛軍暴狀을說明

【巴里二十日發同盟】倫敦부롯셀을 訪問하고 西班牙의 慘狀을 呼訴하야 各國의 援助要請을目的하는 마드리드 大學長가셋드氏를 首班으로한 西班牙法學者團一行은 二十九日 巴里着西班牙叛軍의 暴狀에對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內亂勃發以來 叛軍에依하야虐殺된 西班牙國民은 이미十萬의 多數에達한다 獨逸及伊太利는 叛軍을 援助하야 그程度가 날로 甚하야감에도 不拘하고 世界一般의 輿論이 憤激을 表치안는것은 吾人의不審으로녀이는바이다 獨逸의 웅커ー機 伊太利의 카푸로니機는 數日來 마드리드의 上空을 飛翔하야 市民을 威脅하고잇다 伊太利人은 이미 오르가를 占領하야 定住를 開始하얏다 獨逸伊太利는 叛軍援助의 代償으로 地中海領土의 分割을 엇고자한다

獨伊는叛政府承認 英國은不承認

佛米兩國은英國政府에追隨

承認問題와各國態度

【東京電話同盟】西班牙內亂은 마츰내 叛政府軍의 勝利로 來十月十日頃까지에 프랑코將軍은 首都入城을 敢行하기로되엿는데 其結果 新政府承認問題를 中心으로 利害相反하는 各國政府의 動向은 歐洲政局에 多大한 影響이잇슬것은 勿論 間接的으로 東亞情勢에도 關係가 잇다하야 外務當局은 深甚한 注意하고잇는바 이제 確實한 側에 入한 情報에 依하면 各國의 態度는 如左하다 現地의 情勢로는 來月十日까지에 叛軍은 마드리드市를 奪取하리라고 觀測되는데 프랑코將軍은 三日에는 入城할수잇다고 豪語하야잇고 政府軍은 從來의 計劃대로 카탈로니아州에 退却하야 赤色政府를 樹立하고 어데까지 對抗하리라하나 現實問題로 叛軍의 新政府及 카탈로니아州에 樹立될 政府의 外交的取扱方法에 새로운 考慮를 必要케되엿다 그리고 現政府에서는 蘇聯邦이 露骨的으로 援助를 與하는 事實이 明白하게되여 葡萄牙는 西班牙政府에 二十七日附로 其不法非友誼的行爲를 指摘한 宣言을 發하고 率先하야 叛軍新政府를 承認하고 뒤니여 獨伊 南米諸國은 順次로 이를 承認하리라고 觀測된다 獨伊兩政府는 新政府를 急히 承認하야 카탈로니아政府를 牽制할 模樣인데 英國政府는 自重的으로 現政府側의 特殊非友誼的 行動을 取치안는 新政府를 承認치안코 國際法上 交戰團體로 認定할 模樣이다 그리고 佛米는 英國과 步調를가티하리라고 觀測되다 그러나 大勢는 마드리드市의 陷落과同時에 新政府를承認할것이다 如何튼지마[?]

太平洋沿岸海員 總罷業을決定

大西洋海員組合도이에呼應

同情罷業決行을指令

【桑港二十九日發同盟】太平洋海員은 二十九日午後十二時를期하야 總罷業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大西洋岸海員防衛組合은 二十九日午前緊急大會를開催하고 組合員一千名參加下에 對策을 協議한바 太平洋에 呼應하야 二十九日夜半을 期하야 同情罷業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 會長카란氏는 右決定에 基하야 罷業細目을 指令하엿는데 其內容은
一、大西洋岸에 入港하는 船舶全部에 對하야 怠業을 決行하고 上陸業妨害를 警戒하기 爲하야 監視員을 附함
一、乘組員은 給料金額을 受取하기까지 船上에서 怠業함
一、船夫與貨業務員도 一切罷業을 斷行함

天皇陛下 今日宮城還幸

【東京電話同盟】御旗艦比叡에 御座乘御하옵사 洋上에 進發하옵시사 海國日本의 精銳艦모와 壯烈한 海軍特別大演習을 御統監하옵신 大元帥陛下께옵서는 다시 江田島海軍兵學校에 行幸 二十九日 阪神冲에서 擧行한 大觀艦式의 御盛儀를 畢하옵시고 御精勵의 裡에 十日間에 亘한 海上의 御日程을 無事終了하옵시고 三十日午後二時 皇禮砲裡에 橫須賀軍港에 御入港 天機益益 御麗히 宮城에 還幸하옵시엿다 當日 東京驛第三番에는 皇太后御使 大谷大夫 高松宮殿下를 奉拜하와 御在東各皇族殿下 寺內陸相 其他各國務大臣 文武顯官 威儀를 가추아 奉迎을 드렷다 午後二時五十分 橫須賀驛을 發車하옵신 大元帥陛下께옵서는 午後四時 東京驛 御着車 龍顔御麗히 海軍御軍裝으로 홈에 御降하옵시사 一同에게 御目禮를 賜하옵시면서 坂口東鐵局長 御先導로 一旦松間에 入御 大谷大夫에게 賜謁 皇太后陛下의 말슴 御傳奏를 天聽하옵신後 沿道의 近衛第一兩師團 各部隊를비롯하야 一般市民 堵列奉迎裡에 略式自動車鹵簿로 天機御麗하 二重橋正門으로 御十日만에 宮城에 還幸하옵시엿다

各宮殿下御歸東

【東京電話同盟】觀艦式御陪觀次로 御西下中이시든 高松宮宣仁親王同妃兩殿下 朝香宮鳩彦王同妃兩殿下 久邇宮朝融王同妃兩殿下께옵서는 三十日午前八時 東京驛御着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옵서는 同日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驛御着 各其御歸東하옵시엿다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와 御同列 東久邇宮稔彦王同妃兩殿下께옵서는 同日午後九時 東京驛着 御歸東하옵시엿다

明年度歲入總額 二十八億이最大限

公債發行八億圓突破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에關한 大藏省主計局의 査定은 文部大藏兩省의 豫算을남기고는 大體各省歲出豫算을 檢討하엿슴으로 二十九日早 主計局에서는 歲入豫算 檢討를 開始하엿다 歲出豫算을 總括하기前에
一、租稅收入等의 自然增收
一、增稅額과 增稅에依한 自然增收의 影響
一、煙草價引上에 依한 增收
一、鐵道、遞信、外地特別會計에서의 繰入
其他에 依하야 歲入豫算의 推算을 決定하고 經常的歲入의 總額을 豫算하야 歲出總額과 均衡을 保持케할것으로써 公債의 增發을 可及的 小額에 멈추게하려고 努力하는것으로써 租稅等引上收入의 大藏省所管收入은 別問題로하고 鐵道、遞信、拓務等 繰入關係의 各省에 對하여는 繰入金 其他增收策에 關하야 相當히 强硬한 折衝을 할 方針이다 그리고 大藏省에서 自由로 決定할수잇는 租稅增收引上收入 自然增收는 이미 大體로 明白하게되여 明年度 此等收入總額은 約十二億圓程度인바 이를補足하기爲하야 特別會計로부터 約八千萬圓의 一般會計繰入으로 希望하는同時에 一方 歲出査定에 잇서서도 陸海軍과 如한 國防經費와 各省重要國策에 關한 經費以外는 相當히 猛烈히 各省要求豫算을 削減할 意向이다 이미 目下主計局에서 豫想하고잇는 明年度經常的歲入 普通歲入을合하야 約二十億에 達할 模樣인데 其他에依하야 明年度公債發行額을 今年度부터 約一億圓增加하야 八億圓을 突破하고 其歲入總額 二十八億圓을 明年度豫算에 計上할수잇는 最大限度라고 보고잇다

話題新說

朝鮮의圖書館

十一月一日부터 同七日까지 [illegible] 圖書館은 全日本[illegible] 社會敎育機關이다 圖書館은 社會敎育上가장 重要한 機關으로서 學校와 並存하야써 敎育의 完璧을 期할수잇는것이라는것은 다시 여긔에서 復言할必要도업거니와 圖書館의 發達如何는 同時에 한나라 한地方의 文化程度를 점치는 指標도되는것이다 그러면 朝鮮의 圖書館은 어느만치 發達되고잇는가를 이機會에 一瞥하야두자

◇

朝鮮의 圖書館[illegible]는 最小規模의 私設圖書館까지 모다合하야 昭和十年現在官立二 公立二十二 私立三十七 計六十一個所에 不過하며 그藏書數는 四十萬卷內外인데 이것을 官私立別로보면 官立圖書館平均一館 藏書數는 約十萬卷內外이고 公立은 八千卷內外 私立은 그보다도 훨신 떨어저서 每館 平均約千卷內外의 貧弱한 數字를 나타내고잇다 이것을 먼西洋諸他國과는 그만두고 日本內地의 圖書館總數五千六十八個所 藏書總數一千百十一萬餘卷에 比하면 아직 朝鮮의 圖書館은 發芽期에 잇는셈이다 이藏書數와 人口의 比를 따저보면 日本內地는 大略一人當○、一六 朝鮮은 一人當○、○一七에 該當하다 그럼으로 日本內地와 朝鮮과의 差는 ○、一四餘卷이나된다

◇

그런데 압으로 圖書館의 設置하는것은 勿論[illegible]가 아니겟지만 近來에 圖書館利用者에 잇서서도 年年히 急速히 增加하야가는 形便이고 또 近者 學校增設에 伴하야 圖書館設置의 必要를 漸漸切實히 늣기지는바이다 日本內地에잇서서는 明治三十二年에 圖書館令을 發布하고 그後 二三次 改正、昭和八年에는 根本的으로 改革하야 各郡縣에 中央圖書館과 圖書館을 設置하게되엿슴에 不拘하고 朝鮮에는 朝鮮總督府圖書館以外에는 아즉 圖書館에 關한 法令이라고는 하나도 發布되지아니한것은 當局이나 民間에서 이方面의 發達에도 相當히 關心을 가지지 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밧게 日本內地에 三大學圖書館이잇드시 朝鮮에는 京城帝大圖書館이 잇스나 어느것이나 專門圖書館以外에는 모다 公開하지아니한다 參考로 그藏書數를 紹介比較하면
東京帝大圖書館 約百萬餘卷
早稻田大學同 三十九萬餘卷
慶應義塾同 二十六萬餘卷
京城帝大同 四十二萬餘卷
([illegible])

國府防穀令公布

[illegible]

【上海二十九日發同盟】國民政府는 一兩日中에 實業內政[?] 鐵道交通各關係部會議를 開催하고 食物資源의海外輸出을防止하는 防穀令施行을決定할模樣이다 右는 今年中國은 十數年來의大豐作에도不拘하고 互相의[illegible] 食物의 [illegible] 하야 國民政府가 今回의防穀令을實施하려는데는 多分으로 政策的意圖가包含되여잇는터 [illegible] 外國에게 [illegible] 影響을 [illegible] 에서 反對하고잇다

冀察政權牽制를 西安會議서決定

【北平二十九日發同盟】杭州會議에 뒤니여 西安會議를 開催키爲하야 南京으로부터 西安에飛來한 蔣介石氏의 西安着後의行動은 一切嚴秘에 부치고 新聞報道는禁止하고잇스나 確聞한바에依하면 蔣介石氏를 中心으로 擧行된 西安會議에서는 如左한題目의 決定을 行하엿다고한다
一、西北國防强化
一、甘肅共產軍對策
一、對張學良工作
一、冀察政權의牽制
그리고 蔣介石氏는 綏遠問題에對하야 愼重對策協議키 爲하야 다시 寧夏에서 杭州西安兩會議에 繼續하야 第三次軍事會議를開催할豫定이라한다

蔣氏洛陽來着

【北平三十日發同盟】西安會議에서 北中對策과 防共을 決定한 蔣介石氏는 寧夏行의豫定을 變更하야 昨二十九日朝西安發午後洛陽에 到着하야 軍官學校에入하얏다 同地는 國府의代都로서 上海事變의際 一次遷都한일도 잇는要地이다 山東 河北 河南 山西 陝西五省에 至하는 咽喉로 防備의中心地인故로 蔣介石氏는 同地에서 거듭하야 軍事會議를열고 國防對策의 最後指示를준後 토ー치카其他의 防共軍備施設을 視察한後 今日中에 南方에 歸還하야 三十一日 自己의誕生祝賀會에 參列豫定이다

南總督一行會寧視察

【會寧電話】二十九日夜 圖們領事分館에서 植田關東軍司令官과 歷史的會見을 行한 南總督一行은 三十日午前九時半 領事館을 出發하야 一路 汽車로 會寧에 向하야 午後一時八分同地着 郡廳 飛行聯隊 홍스린工場을 視察하고 同一時五十五分 旅館會寧館에 入하엿다

治水調査會 總督府側의說明

二十九日午前中의 治水調査會는 總督演示、總監人事가잇슨後 會議를開始하야 各幹事로부터 左와如한 說明이잇고 正午休憩 午後一時부터續行 山下林政課長으로부터 『治山事業의經過』에對한 說明이잇고 各委員의意見開陳이 잇섯다
一、朝鮮의地勢 地質 氣象(榛葉土木課長)
一、朝鮮의林野狀況(山下林政課長)
一、朝鮮의河川狀況(榛葉土木課長)
一、過去의洪水(同)
一、昭和十一年豪雨 山津浪 洪水(同)
一、治水及 治水事業의經過(同)
一、治水事業의經過(同)
一、水防團의狀況(伊藤警務課長)

朝滿人事交替 總督府內大異動

日滿接壤의 一線上에잇서 朝滿一如의 具現化에 百尺竿頭一步를 進하야行한 南總督 植田駐滿大使 兩巨頭의 會見은 모든意味에잇서 重要性을 갓는것으로 各方面注視의 的이 되여잇는데 南、植田兩巨頭 會見에 잇서서는 朝滿間의 懸案에對하야 大綱的意見交換을 行하고 朝滿依存의 深化에 劃明的一新紀元을 劃하리라고 觀測되는데 더욱隨行한 鹽原秘書官 三橋警務局長 相川外事課長等모다 現總督施政의 中樞에 參劃하는人物과 駐滿大使隨行員과의 會見은 發表한바와如히 總督府에서도 優秀한官吏를 派送하야 滿洲國其他在滿要路에 參劃케하고 朝鮮에도 滿洲國及 滿洲關係要路의 人物을 轉用하야 『相互相率』의 强化徹底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한것이라고觀測된다 그리고 朝滿兩官界의 人事入替는 자못 南總督就任當初에 豫想되든바로 今回의會見에依하야더욱其具體的進捗을보든模樣인데 總督府上層部高官의 速續한滿洲視察도 這間의 消息을 通하야 自發的滿洲人을 促進하는結果로도되며 따라서 南總督第三次人事大異動은 朝滿人事의 交替를 中心으로 斷行될 것으로豫想되는데 大野政務總監의 東上을 機會로 更히 中央部와도 人事에關한協議가 잇슬것이라는觀測이 有力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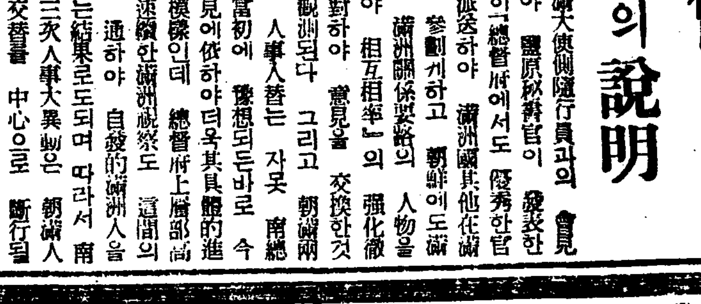
人事·集會

▲松澤龍雄氏(農林局農務課長) 新任人事次來社
▲景山宜景氏(同農村振興課長) 同上
▲松本朝鮮製鍊社長 二十九日西四軒町二一四番地에移轉(電本六二七六番)
▲張元俊氏(本社記者) 三十日朝永興郡德興面宜川里家第에서喪配

八面鋒

◇ 產業調査會의 뒤를니어서 治山治水會議를 또開催.
◇ 一朝一夕에 解決할問題는 아니라할지라도, 朝鮮에서 水害라는 年中行事를 제발업시하소.
◇ 閣僚의 東京總出을 機會로 政局이 한層 [illegible]해지리라고.
◇ 緊張한끄테 安定이오는나 不安이 오는나는 民間의 注目하는 分岐點.
◇ 年末도 되기前에 京城各商에서 [illegible]가 橫行.
◇ 조치못한 慣行은 幾乎부터 除去해야되다、郵便局官吏、좀더 發奮하소.

어을빈 魚乙彬
만병수정 萬病水錠
最高의治病劑
體毒고驅
本病본병 痰痛담통 疳瘡감창 哮喘해천 骨痛골통
遺病유병 瘰癧나력 積病적병 皮風피풍 腫氣종기
滯症체증 久嗽구수 痼疾고질 身熱신열 吐痰토담
浮腫부종 梅毒매독 脚氣각기 喘慢疾천만증 連珠瘡연주창
神經痛신경통 筋肉痛근육통 遺毒瘡유독창
半身不隨반신불수 腰痛症요통증 骨節痛골절통
數溺症삭요증 楊毒瘡양매창 動脈硬化症동맥경화증
其他內外慢性病



보재약정 補材藥錠
慢性胃腸病 만성위장병 神經衰弱 신경쇠약 重病回復 중병회복 動脈硬化 동맥경화
精力減退 정력감퇴 食慾不進 식욕부진 體質虛弱 체질허약
心臟諸症 심장제증
一瓶金二圓

金鷄納
十二구람 金一圓六十錢
二十五구람 金三圓
보재고약 화상, 태독, 종기 두창, 기타피부병 金五十錢
옴 약 모든옴병 金五十錢
◆廣告冊子無代進呈◆
朝鮮釜山府榮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話(長)一九三九 振替釜山五〇〇
魚乙彬 어을빈

內水는南旨로誘導 本流를馬山에排除

戰慄할水魔를退治하는萬全策의內容

洛東江岸住民이陳情

매년수해로 막대하야 다수한 인명의 손상을내이고수천만원의재물을 업새여버리는 수마의락동강(洛東江)의 근본적 치수책의 긴급한 실시를 락동강연안주민대표는 이십구일에 총독부에진정을하엿다

마침 총독부에서는 방금치수위원회를열고잇는중임으로 이진정에대하야도 상당한참고로삼을터이라는데 진정의내용을 보면 다음과갓다

락동강은 매년수해로말미암아 최근십년간의연평균피해액은 삼천여만원에 달하고 금번의대수해에는 실로 륙천여만원의 손해를보이엇다 수해가 가장심한 하류에잇서서는 그원인은 삼랑진(三浪津)으로 부터 물금(勿禁)에 이르는 삼수키로의 강폭이가협착하야 하구(河口)에 갓가운 산각(山脚)의 협착부를 형성하지세에서 홍수가 범람하야 거구로흐르게(逆流)되야 매번 참해를보게된다 그럼으로 이에대한 만전책으로는지산과중소하천의 정리를하는외에 락동강본류의대수량을 해변으로 배제할하계엇서 락동강수를마산만(馬山灣)에 방류(放流)하는시설을 실현하여잇다

특히 금번수해의 경험에의하야 보아도 하상(河床)의변화 상승(上昇)과 내수(內水)의배제에대하야 남지(南旨)마산만방수계획의 실시에잇다는 것이다

人口四十萬目標의 大平壤建設計畫

昭和四十年을一期로써成案

卅日、總督府서發表

평양(平壤)시가지계획개요가삼십일총독부 내무국(內務局)에서 발표되엿는데 소화사십년에 인구가 사십만명이될것을 목표로 생존구역(生存區域)이 대확장이 되여서 종래보다 약사배반이늘것으로 구천이백사만칠천평방메돌이되는바 새로평양부에 편입되는것은 대동군 림원면(大同郡林原面) 서천면(西川面) 룡산면(龍山面)고평면(古平面) 대동강면(大同江面)의 각일부분적이다 그리고 도로의계획은 대도(大道)가 세조혹은 사십선이고 중도(中道)일백구선이고 그밖게가 일백사십구선이 된다

結氷期압두고 燈臺浮標休止

압록강(鴨綠江)이 결빙기(結氷期)에 림박하엿스므로 그강에 설치한 각부표(浮標)와 등대(燈臺)의휴등을 다음과가튼 예정으로 작업하기로되엿다 그강에 항행하는 배들은 주의하는것이 조켓다한다 그러나 삼포등대(三浦燈臺)는 휴등하지안는다한다

▲鴨綠江東水道第一號挂燈浮標 十月三十日
▲鴨綠江東水道分岐浮標 自十一月五日 至十一月八日
▲鴨綠江西水道第二號挂燈浮標自十一月十一日至十一月十二日
▲鴨綠江西水道第一號挂燈浮標自十一月十三日至十一月十四日
▲鴨綠江本流及西水道分岐浮標自十一月十四日至十一月二十日
▲鴨綠江大東溝挂燈浮標 自十一月十五日 至十一月十六日
▲鴨綠江西水道第九號挂燈浮標自十一月十七日 至十一月十八日
▲水運島燈臺(休燈) 十一月十八日
▲大東溝挂燈立標(休燈) 十一月十五日
▲馬鹿燈臺(休燈) 十二月末

孔德町에棄兒

삼십일오전령시반가량되여 부내공덕정(孔德町) 삼일번지의십구호길아페 나이한살가량된 젓먹이사내아이가 내버림을 바든채 포대기쪽에 싸혀서 보채고잇는것을 마침 그압집주인 정선오(鄭善五)씨가 발견하고 거두어가지고 이사실을 소관룡산서에 알리왓다

給仕에게暴行 飮食갑말성으로

이십구일 오후 여덟시부터 열한시까지에 시내삼판통(三坂通) 삼백삼십륙번지 광업하는 한선(韓瀧)()이가 시내 관철정(貫鐵町)종로회관(鐘路會館)에서 이십사원칠십전어치 주식을 먹고 그대금까닭에 말성이나서 그곳급사에게 폭행을 하야전치 일주일간의 부상을 입히고는종로서에 폭행죄로 검속되엿다

贈賄受賄는是認 橫領事實만否認

卄九日、平壤法院서第一回公判

現職警官瀆職事件

【平壤】 평남성천군성천면(成川郡成川面)에잇는 금은아연광(金銀亞鉛鑛)에 련결된 현직경관의 독직사건으로 일반의 주목을 끌고잇는 신의주(新義州) 광업가 김장수(金長壽)()의횡령증뢰 김병규(金炳圭)()의 증뢰 리승우(李承宇)()에관한 증뢰 평양(平壤)평남도 순사부장 김병욱(金炳旭)()에관한 증수회 사건의 기타의 방청인이 몰려드는데 그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이십구일오전열한시부터 평양지방법원 제일호 형사법정에서 복포(福浦)재판장주심 최(崔) 고전(高田) 량판사 배심 대판(大阪)검사립회 주간흠(朱幹欽)최정묵(崔鼎默)본도(本島)횡전(橫田)삼정(三井)등 다섯변호인의 렬석으로 개정되엿섯는데 방청석에는 사복경관 잠을일우워섯다 대판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의 뒤를이어김장수(金長壽)로부터심리가 개시되엿는데 증뢰사실은 시인하고 횡령사실은 부인햇스며 김병규는전연사실을부인햇다 김병국과 리승우의 량인은범죄사실을 전부시인햇스나 김규조는 전연부인하며 시선을진중햇다

다시그일을 결정하여 재이회심리를하기로하고 오후네시경에 폐정햇다

仁川、新義州兩府 都市計畫原案

卅日、總督府에서發表

인천(仁川)부와 신의주(新義州)부의 시가지계획에대하야 총독부내무국에서 삼십일에 다음과가티 원안을발표하엿는데 이 … 문한후에 그답신안을 내무국에 제출케한다 그리하야 이답신안을 다시총독부안에잇는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후에 계획안의최후의결정을 보게될것인데 량부의계획원안은 다음과갓다

▲仁川府—인천부는 소화이십년까지에 인구이십만명을 수용하게 총면적이 천칠백오십팔만필천사백평방메돌」(平方米)에 시가지의건설을하되 그중거주가 가능한면적은 이천사백사십삼만필천평방메돌이다 또인구의밀도(密度)는 거주가능면적에대하야 한사람에게일백이십이평방메돌이다 도로는 대중소세종류로나노아 소로(小路)는 넓비가십이「메돌」미만으로하고 대중랑로는 각기세종류로나노앗는데 최고넓비는 삼십사메돌이다 또 시가지계획구역내에서시가지계획 토지구역의정리를할면적은 일천팔백평방메돌이다

▲新義州府—신의주부는 소화이십이년까지에 인구구만명을 수용할수잇게 륙백이십일만삼천팔백평방메돌의 현면적에 거주가능한면적을 오백사십팔만삼천평방메돌로하야 시가지계획구역으로하엿다 인구의밀도는 거주가능면적에 대하야 한사람에게 륙십일평방메돌이고 시가지계획구역내의 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를할면적은 이백이십륙만평방메돌이다 그리고 도로의넓비는 인천부의 것과가티 삼종칠류(七類)로구별되야잇다

運動競技

東京올림픽에暗影 市와體協對立

牛塚市長體協案一蹴

【東京電話同盟】 森島氏의 辭表 과平沼日本體協副會長의 辭表로 東京올림픽을 압두고體協은大混亂에빠젓다 「嘉納」에 올림픽組織委員會를 作成코저準備委員二十八名을 體協評議員會에서決定하야 二十八日 大島理事가市廳舍에 牛塚東京市長을 訪問하고 諒解를 求하엿는바 牛塚市長은 二十八名의 委員中二十六名을體協이獨占하고 文部省으로부터는 栗本○師敎授 東京市에서는 草間庶務課長을 加하엿슬뿐인데 國家的大事業을 官民一致協力하야야할 올림픽大會에 一體協이中心이되여 準備를進行함은不當하다고하며 東京市의委員就任을 拒絶하기에 이르럿다 이는 將來부터 올림픽招致問題 技術 其他를 위하야 體協對東京市의 對立을表面化한것으로東京올림픽에 一大暗影을 던지고잇는데 牛塚市長은二十八日夜自邸에서 다음과가티말한다

草間委員의 辭任拒絶은 草間氏에게도交涉이업고 또市에도 諒解가 업섯슴으로 拒絶하엿다 그後體協의 大島君이와서 그러면 困難하다고하며 準備委員會는 體協이 中心이라하야 市가參加할 必要는업다고 말하엿다 그러나 組織委員會에參加하는것은 當然이다 大會는 體協만이 着手할것이아니라 官民一致 組織委員會의일이며 … 準備問題를 解決한後 모다 一致하야 올림픽을 넘부러지안케하려는것이 市의態度다 萬一 이대로만간다면 體協側에 任置하지안코主催地로서의 立場으로 市가 스사로 世界의選手를모아올림픽을 開催할터이다

籠球聯盟戰 申請은卅一日限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回籠球聯盟戰은 十一月六日부터 鐘路靑年會館運動室에서 開催할터인바 同聯盟戰의申請期는十一月二日까지엿스나 豫定보다당기어서 明三十一日까지에 마감하기로되엿다한다

基靑拳鬪部 平壤遠征 來月二日에對抗戰

平壤崇實公會와 京城中央基督敎靑年會拳鬪部와의 第一回拳鬪對抗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三十一日 午後七時半부터 平壤白善行記念館에서 擧行케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兩軍의 事情에依하야 對抗戰期日은 十一月二日午後七時半으로 變更하는同時에 京城拳鬪部一行六名은 一日午前八時京城驛發列車로出征할터인데 一行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引率者=張權 ▲코-치=李惠澤 ▲選手=플라이級 … 밴텀級 金相敦 페더級 康仁錫 라이트級 姜瀨道 웰터級

都市對抗野球에 全京城軍出發

明卅一日부터 小倉市에서 열리는 第二回西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에出場할 全京城軍一行十三名은 監督中村國雄氏引率下에 卄九日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出征하엿다

朝鮮學生馬術大會

朝鮮學生馬術聯盟主催의 第九回朝鮮學生馬術大會는 來十一月十五日午前八時부터 龍山騎兵卄八聯隊馬場에서 擧行할터이다

運動界人事

▲龍頭明新學校蹴球團一行十七名은 明三十一日부터 開催되는 全朝鮮綜合競技蹴球大會出戰次로 監督閔泰鄕氏引率아래 二十九日夜入京 貫鐵町 信行旅館에投宿

非常警戒陣을弄絡 永登浦에또强盜

電線四個切斷、府議宅에侵入

漢江橋서即後逮捕

꼬리를물고 발호하는 강도사건으로 경찰은 눈코를 못뜨고잇는판에 작이십구일은 서대문경찰서의 턱미친 교남정(橋南町)에서 대담한 식도강도가나타나 다액의 금품을빼아서갓스나 아직도범인 체포에 이르라할만한 단서조차도못엇고잇는것을 조롱하는듯이 교남동강도사건이 발생되지 이십사시간도 되락말락한삼십일새벽에 이번은 시내영등포 신길정(新吉町)에 복면강도가 나타나 대경성일원은가위 강도공포시대를 보이고잇다

삼십일오전세시경시내영등포신길정칠번지 경성부의원 령목문조(鈴木文助)()씨집에 뒤문 류리창을깨트리고 안으로 잘들어선후 드러갈때 전기선과 전화선 네개까지 끈흔후 주인부부가 자고잇는 침실에 이십칠팔세가량되는 젊은사나이가 칩입하야 손에는 단도비슷한것을 들어주인부부를 위협한후 돈을내라고하자 령목씨의 부인이 고함을치는바람에 그것방에 자든동씨의 족하되는 소야사경도(小野寺敬道)()도 일어나 도적이야하고 맛고함을치자 칩입햇든 도적은 아모것도 어든것이업시 그대로뛰여다라나버렷다 고한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전날새벽부터 교남정강도사건의 수배를밧고 종일토록활동하다가 범연시나되여 형사대는 퇴청한뒤 연대 뒤미처이급보를밧고 비상소집을하야 범인체포에활동을하든중 새벽다섯시에 한강철교우에서 그진범인 양주(楊州)출생 김성천(金成千)()을 체포하야 취조한결과 범행을 자백하엿다 (사진은 범인김성천)

宛然 强盜時代

前東銀出張所小使 犯人은金成千

不審訊問으로被逮

【永登浦】 범인은 양주군진천면(楊州郡眞川里)(以下未詳) 에 거주하는 원동일은행영등포 출장소(東一銀行永登浦出張所)소사로 잇든김성천(金成千)()으로 소행이불량하기 때문에 금번파면에 해고되여현재에는 아모직업이업시 각지로 배회하는터인데 이십구일 오후 여섯시경에 영등포(永登浦)에 아는사람을 차저나왓다가 삼십일오전한시경까지 부근을 방황하면서 전부터 령목문조(鈴木文助)씨가 재산이잇는것을 안터이라 침입하려가지고 범행과가티 침입하야 「돈을내어라 떠든면밝게만하모인 동배가 모다들어오라」고 협박할지음에 옆해방에서자든 소야사경도가 뛰여나오며 벼락가튼소리를지를때 그만겁결에 당황하여 아모것도 엇지못하고 로량진(鷺梁津)방면으로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려다가 오전다섯시경에마침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신사 형사대에게 거동수상자로피체되여 취조를바든 결과 전과사실을 전부자백하엿다고한다

東銀出張所支配人 李澤氏談

범인 김성천(金成千)이라는자는 동은행에서 소사로 일을하든 자인데 이런일을 하엿다니 듯기에퍽섭섭합니다 그아이는 작년칠월십팔일에 우리은행에 소사로취직하여섯는데 평소에 행동이 너무 불량하기때문에 할수업시 지난 팔월이십이일에 특히본인의 장래를 위하야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고하엿섯는데 다행히 은행에는 아모 피해가업섯습니다

各署司法主任 警察部서密議

경성시내에서 자조 발생하는 강도사건으로 아직 그범인은고사하고 자취조차 알지못하야 경찰당국을 초조케하고 잇는사건이 최근 약한달남직한 동안에 봉래정(蓬萊町)삼이강도사건을비롯하야 영등포서관내 교창대강도 원정(元町)담배가게강도 서소문정(西小門町)송진강도사건의 네건으로 이십팔일에는 또다시 교남정(橋南町)소고기파는 집에 세사람의 강도가 칩입하엿고 삼십일에는 영등포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야 (이것만은 범인이체포되엿다) 경성은 흡사히강도공포시대를 연출하고잇다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삼십일오후 한시이십분부터 시내여섯경찰서사법주임(昌德宮警察除外)을경찰부에모혀노코 경찰부장의 비장한 훈시가잇슨뒤 여기에대한 대책을 신중히협의하야 이미발생된사건의 범인을 하로밧비검거할것은 물론 장차의 사건발생에 만전의방비책을 강구한바잇섯는데그성과는주목되는바이다

食刀强盜는杳然

또迷宮으로드러갈가

루보=이십구일밤 서대문서관내 교남정(橋南町)에발생한 삼인조식도강도사건은 셋재날되는 삼십일까지 경찰의수사는 하등성과를엇지못하엿다 사건발생후 경찰에보고가오기까지는 삼십분가량밧게되지안흐며 각종을 적중거조치 충분히제공되여잇서도 가장중요한범인은 체포되지안는모양으로 초조한경찰은 전과자와 우육(牛肉)행상등을 주로수사를 계속하고잇는모양으로 루필이래 동서관내에만 파괴록적으로발생한 여섯건의강도사건중 동일한범인의범행인 강도세건이 한번해결되엿을뿐이고 꼬리를물고일어나는 대담한범행에 서부일대는 경찰의 무능을비난하는소리는 점점노파가고잇다

西大門强盜送局

共犯崔敬元은取調中

情婦朴順愛는無事釋放

지난 이십일새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일백오십일번지 오괴양(吳桂陽)의 집에침입하야 칠십사원을 강탈한 범인 방원봉(方元奉)()은 그동안 시내종로서에 체포되여취조를밧고 잇든중 이제 그취조가 끗이나서 삼십일 오전에 증거물품과 일건서류와 함께 검사국으로 넘어갓다 그공범관계로인치되엇든 최경원(崔敬元)()은 강도범행에는 관계가업는것이판명되엿스나 방원봉의나머지범죄와관련이잇서게속하야취조중이고방원봉의정부인 박순애(朴順愛)()는석방되엿다

단성사사진
놀나웁다 이人氣!
滿員特別謝禮
卅一、二、三 사흘간은 土、日、兩曜明治節
엇재든보서야해요、
지금상영중인
將來의世界
勿忘의노래
雷鳴
十一月三日까지 今上映中
團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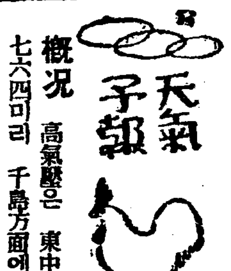
兄弟싸움에끼여 마저죽은兄嫂

兄치려던진 아우의燭臺에

振威郡下의骨肉慘事

아우가 형을 때리려는것을형수가 중간에드러가서 말리려다가마저죽엇다 경기도 진위군송탄면 이충리(振威郡松炭面二忠里)리상옥(李尙玉)()은 지난 이십륙일 오후여덟시에 금전거래상 관계로 그의친형상려(尙麗)와 입다툼을하다가 마츰내격분하야 촉대(燭臺)를휘둘르며서그의형을따리려는것을 형수권간란(權干蘭)()이가 갑갑하방에서 두사람사이에 드러가서 말리려하다가 그만왼쪽눈알을 맛고시마저서 의사불성이 되엿는데 그날밤 열한시오십분에 죽어버렷다 평택경찰서(平澤署)에서는 이십구일오후세시에 풍편으로그소문을 듯고 서원이 현장에출장하엿든바 가해자는 이십칠일에 경성방면으로 도망해버렷고 시체는벌서 매장을 하여버렷다 범인을 사방으로찻는 일방으로 시체는 해부하기로 되엿다

天氣豫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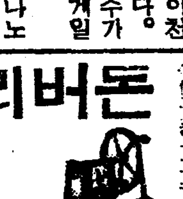


概況 高氣壓은 東中國海에 七六四미리 千島方面에 七六六미리를 보이고잇스며 低氣壓은 滿洲北部와 日本海及日本本州中部의 南海上에잇다 滿洲及朝鮮及西日本은개엿스며 南朝鮮半島中部以北은 흐리고 日本本州中部는 비가오고잇다 北海道以北은 日氣가 良好하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릴터이며 明日도흐리라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一七度四
同 最低 三度八
今朝最低 五度八
今日正午 一四度一

朝報案內 社員招聘 本社 京城 …
恩給 …
朝鮮建築社 電話本局 五五六二番
科喉咽鼻耳 永日美 醫學博士 京城 … 入院室完備
돈버리에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 株式會社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樂 百補丸 平和堂 京城堅志町
世界唯一 ライト發動機 最高優良 (在庫豊富) 本社 … 支店 … 代理店所在地
有利事業 一、履歷의槪況 二、投資金額豫定 三、開店하실營業場所 卸問屋 合資會社 都大藥房
長篇小說 方仁根作 魔都의香불 藝術的浮美本 定價金二圓 本社 京城販賣所 本2 一五九七番 永昌書館
朝鮮日報安岳支局 振替京城七二五〇番
平壤府水玉里 (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產婦人科 醫學士 李 □ 杰
新案特許 淋病治療 淋疾이거든、藥物療法이거든、最新科學療法으로


第一劇場 優美館 東洋劇場 …

健康回復最好機에 百補丸 一箱式 無料進呈

勿失好機

不老長壽·強精回春·更少年補藥

百補丸一箱無料進呈期限도
滿期迫到 不遠締切되오니
機會를일치마시고一日速히注文하시요

●身體健康은萬事之本이오니
●今秋에는爲先 第一먼저
●世界的補血强壯劑百補丸을
쓰시요

●果樹園主人이
더조흔 果實을 엇기 爲하야
더조흔 肥料를 주는것 가치
●당신몸主人 당신은
더조흔 健康과 成功을爲하야
第一조흔補藥 百補丸을 쓰시요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男女老少

一、老年이쓰면 更少年이되고
二、壯年이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쓰면 煖宮胞胎하고
四、靑少年이쓰면 精神이聰明한 秀才가됩니다

●世上은조흔世上이다

(昔日에는 貴族 兩班階級만이 쓰던 極秘方補藥인데 只今은 男女老少 누구던지 自由로 쓰게되엿다)

●●事業成功과健康長壽를希望하난사람
●靑春을延長하고저하는사람은쓰시요

●이런분은 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줄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초가恒常濕冷한사람
▲肺가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衰弱한데 特効함
▲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진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ホルモン不足 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은 더욱 速効합니다
▲눈이밝아지고 皮부가 조와지고 血色이 조와집니다
▲全身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完全한 陰陽雙補되는 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야라만알것임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男女老少다조씀니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堅志町(五) (電光)六三二 (振替五番)

●全鮮大藥店에 委托販賣店募集中●
●特大最大型カレンタ百部式無料進呈 (責任所店名印刷)하야無料進呈하오니速히申込하시요

藥價
一劑 特價 拾圓
重用 二十圓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
四、商品陳列所 全朝鮮 和信連鎖店

平和堂本社前廣場에서 社員一同이 百補丸을 宣傳하는 光景 (前中央日報社) (三百間大洋屋)

世界第一紀念

●先着一萬人限[illegible]無料進呈
▲躍進 日本스포ー쓰는世界第一!
▲今回獨逸 伯林에서 開催된 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 榮光의一等!
▲政府는國民保健을爲하야一千萬圓의 保健費를 豫算하는等健康問題로 天地가 振動하는 이때에
▲最高의健康劑 百補丸 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健康을 爲하야 또는
▲이世界的 쓰포ー쓰를記念하기爲하야 損益을 不顧하고 大大奉仕的이로 先着一萬人에게限하야 百補丸 十圓分 一劑사시는분께 百補丸(十圓包半劑入) 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 하엿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 먼저 곳注文하시요 一萬人어차면 無料進呈은 中止합니다
▲注文書에는 必히 祝賀特賣注文書 라고明記하시요

절……후……의……향……기

가을에대해서
감상적인애는 병적입니다
언제나아름답게보게하십시요
절후에대한아동의지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겨을로 절후는 바꾸어집니다 바꾸어지는 절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가르처줄것인가 하는데 대하야서는 서양가튼데서는 벌서부터 연구하고 잇스며 시행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아즉 조선과 가튼 곳에서는 이러한것을 연구하느니도 드믈고 관심가진 사람도 적은것 갓습니다

그러나 봄이면 꼿치피고 가을이면 락엽이 진다는 자연계(自然界)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어린이에게 인식시키는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아히의 의복벗갈이라든지 실내장치 가튼것으로 암시하는수도 잇스며 유희가튼것으로 인상(印象)을 깁게하야 시적(詩的)감정을 도두는것은 자녀들의 정조교육상 지극히 필요한것입니다. 어린이는 대체로 어룬이 지도를 하지안흐면 절후에 대한 관념이 둔합니다 다만봄이라던지 가을이라는 어룬들의말을 듯고 어렴풋시 거긔대한 관념만을 가지게됩니다

이러할때는 친절하게 절후의 개념(概念)을 이야기해들려주는것이 조흡니다. 조선과가치 절후의 변화가 명확하고 뚜렷한곳에서는절후의변화를 리용하야 어린이에게 시적감정을 불러닐으키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옛날부터 치운 나라에서 큰 시인(詩人)과 문호가 만히 나게 되것도 여긔에 만흔 도움이 잇다고 볼수잇습니다 그와동시에 극히초보적인 과학을 이야기 해듯기는것도 이저서는 안됩니다

례를들면 가을에는 락엽이되는데 이락엽은 어떠케 되는지 무엇때문에 나무입히 붉어지며 떠러지는것인지를 아르켜주도록 하되아 이들에게 여긔관련시킨 인생문제가튼것을 넛는것은조치못합니다 감상적인것을배척하고 어듸까지던지 명랑과학적인 인생관을 부려넛토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가령 가을이란 절후는 락엽이지고 쓸쓸한때라는 예상적기분은 어룬들의 감정이져 어린이에게는 꿈에도생각하지 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가을이되여 곡식이 익고 과실이 익는것은 여름과봄동안에 아버지와어머니들의 착실한 노력에의하야 가저온갑품이란것을알게하고 어룬들의 노력이 얼마나 장하고 귀한것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감사하도록하지안흐면 안될경입니다

영향을 어떠케주느냐하면 어른이 가르처주지안터라도 자연 인생문제에 흥미를가지고 알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센티멘탈」하다는것은 일종의병입니다

어린이의 생각은 어듸까지 직관(直觀)적입니다

변화하는 삼라만상의 속가피흐르고잇는 모든현상을 알지못하는것이니 주책업는 신비스러움을 버리고 아름다운시와 초보적인 과학으로 이것을 해석해들려서 어린이로하야금 유쾌한인생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오십먹은과부에게 정부는년금지급

영국에서는 과부에대하야는오십오세부터 년금이(年金)지급되는데 독신녀성에게는 륙십오세이상이 되여야 년금을 지급하게 되여잇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요지음 영국독신녀성협회의회원이만오천명이 론돈서 시위행렬을 하엿답니다 만약 이요구를 들어준다면 년금이 이천이백 오십만불이나드러야 할터임으로 정부에서도여간큰거리가 아닙니다 당협회의 요구는 독신녀성은 오십세이상이면직업을 어들수업게되니 오십세까지 년금을 주기로해달라는것이랍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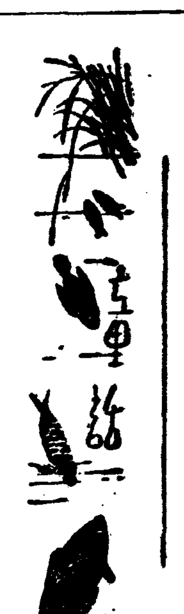
『물레』

물레를 저으며
옛날이야기 하시는
공태원 할머니。
오로롱
오로롱
물레도는 소리는
이야기처럼 무섭다。

(글사람 오장환)

왕자와거지 ④

마-크·토웬 作 崔秉和 譯



三、왕자님을맛난「톰」

이러한꿈을 꾸엇만치 잇는날아츰 집푸레기우에서 잠이께여슬때의 톰은 얼마나 락담이되엿겟습니가? 숙빈배를 부등켜안으채 집을뛰여나와서 지향업섯길을거러갓습니다. 그러나 어제밤꿈에 아죽것 마음속에의긴톰은 지금자긔가 어느곳을거러가는지 자긔가지나가는근처에서 무삼일이일어낫는지 도모지 눈에 드러가지안코 귀에들리지안엇습니다. 그럼으로 거러가는동안에 여러사람과부드처서

『이놈이 눈깔이머럿나? 압흘좀보게。』하고 떠다바질느고 소리를질너도 그것까지도 귀에들리지 안엇습니다。

그러는동안에 톰은 런돈문밧그로 나와버리엿습니다 톰이정신을 차려슬때에는어느름엔지 훌륭한 대궐문압해서잇섯습니다。

가로길다라케 돌집이잇고 그돌집에서문까지사이에는넓으나넓은잔듸밧들이 파릇파릇 고읍게잇대여잇섯습니다 대궐문량쪽에는 처다보이는 커다란 돌사자가 엄숙하게 서잇섯습니다。

번적번적빗나는문압헤는 한사람식 머리꼿에서부터 발끗까지 무쇠갑옷을입고 투구를쓴 병정이 깍거세노흔 사람가티 꼼작도안히하고서 잇섯습니다。

그문압 멀리서는 시골서 런돈구경을오듯한 사람들과 또는한가한사람들이 열아문사람 한둥텡이가되여가지고 어느어른이나오시지나안나하는얼굴로 느러지게서서 바라보고잇섯습니다。

이광경을 한번보톰은 이곳이야말로 임금님대궐이틀림업다고생각하고깃븜과놀나움으로해서 가슴이두근두근해왓습니다。사실 이곳이야말로 영국임금님이계신 대궐이엿습니다。

톰은 가만히서서잇짐보곳하고 파수병정사이를 와다갓다하엿습니다。문안에는 아름다운 소년한사람이 서잇섯습니다。유희와 운동으로해서 해비체거른 튼튼한얼굴이엿습니다。머리에는 휘새털을 떨존 새ㅅ밝안모자를 쓰고 잇고 옷은흰비단이고 허리에는 보석을박은단검(短劍)을 찻습니다。——조곰떠러진곳에는 점잔은신사의목인이 공손한태도로 비켜서잇는데 이사람들은 왕자님을모시고단이는사람들이엿습니다。그톰은 기쁨에넘처서 고만소리를지를번하엿습니다。그것은 무리가아니엿습니다。지금 겨우 오래동안바라든소원이 이루워저서 자긔가 아페 정말왕자님을 뵈올수가잇스니깐……。톰은 자긔를이저버리고 한거름한거름 문아프로가까하가서 문안을드려다볼라고하엿습니다。그러니깐、

『요놈、거지녀석이 어림부로와。』하고 머리위에큰소리가나는듯하자 파수병의손이톰의목덜미를 붓잡어서땅바닥에다가내동댕이를 첫습니다。이것을 본구경군들은일제히 와ー소리를지르며 껄껄우섯습니다。

그런데 뜻밧게 이때 문안에서 너펄너펄흰것이 움속이는듯하드니 그곳에는 눈을부르뜨고얼굴을붉킨 왕자님이 뛰여오시엿습니다。

布袋記

連載野談 布袋記 (一四九) (不許轉載)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저죽기소원(八)

리선전관이 그 찻두에게 돈백냥을 주어 보낸뒤에 희망이넘치는 가슴에서 솟서 올으는 긴숨을 내쉬며、

『일은법이 심분 미듬성이잇서。주선하야 준다는 사람이 병판의 매씨。그중에도 통상이 역여서 우연한 일이라면 다수용하는 모양이니 내변술자리 한자리쯤이야 그가청만한다면 안들을일업지。내가 이미 무과에 당당히 급제를했것다。또는 선전관조사까지 지내더이니 다른사람보다는 손이 떠 쉬울일이지。더구나 병판매씨가 나를 드러 그러케 잘낫다는양반이 어찌 초동에서 그대로 썩을수 잇겟는가하는 말까지하얏다는것은 분명 내게동정해서 일키른 말。내가합북만잇는 팔자라면 계제되범으로는 틀림이업는일。그러나 지난일로 생각하면 신수가 하두 겻정한 신수랑。아아。어찌되려누?』

하며 한편으로는 히망의 밝은길이 훤히 터질듯도 하나 또한편으로는 장래가 쪽 여의하성사가 될는지 그허비(喜悲)의두느김으로 자엽 심신이 산란하야젓다。

이때 이칭이가 겨레서엇다가 약간 불안한 괴색으로써、

『나으리! 그돈을 그대에보내실러이면 소인을 시켜 보내시든지。그러치 안흐면 그손과 동행을 하게하시든지 하시지 적지아니한 돈을 그대로 내주시오니 세상사람의 마음을 어찌꽉 미들수잇습닛가?』

하고 그돈 백냥을 그대로 내어 준것을 께름적이 생각하는 뜻을 말하얏다。

『옹。네말도 고이치 안흔 말이다。그러나 그손이 채림채림뿐 아니라 주인의 말을듯드래도 벼란관의 하인인것은 분명한것。설사 그러치안타하드래도 사람을 그러케 밋지안흘 도리가잇나?。밋지안흘바에는 부리지말것(疑人勿使)이요부리거든 의심을 마려야(用人勿疑)만 하는법이야。그러커니 내 한번 저를 밋고부리는바에 그돈 백냥쯤으로써 좀땡이 노릇을 할수도 업는 체면이오 또는 신의(信義)로써도 못할일。만일 나를 속이는일이라면 그것은 첫재로사람을 알어보는 총명이 업는 허물이 내게잇고。둘재로는 그러케 발려마치는 수단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찻두에게 엇지。사람으로서 처롬짓고 어찌 안심으로 살수잇것니。』

하며 리선전관은 사랑을 부려는데 대한 대경대할으로써 이칭의 의심하는생각을뜨러임막다。그런데 그찻두는 그 이튿날온다는 약속을 버리고 또한소식이 업섯다。

리선전관은 종일 찻두바궁한하야 그 찻두의 오는 종적을 살피다가 펄경 밤이 들도록아무 소식이 업는것을 보고、

『허허。이손이 이칭이 생각이 맛는라고 과연 나를 속이는게가 이게 웬일인고?』

하며 은근히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엇다。

이칭이가 동행하야온 덕용(德用)이를 향하야、

『여보게!。나리마님의 섬미를 알수업네。글세 그 적지아니한돈을 돈동에도 피가나는 그돈을 어찌자고 함부로 내주시여。보게 오늘 온다는 놈이 쿵구어 먹은자리니。속는일이야 속어。』

하며 몸시나 걱정이 되는돗을 말하얏다。

이때 덕용은 자리에 누엇다가 벌떡 일어나 담배대를 쥐어서 담배를 피어 물면서、

『그돈 백냥을 때고 안때는것은 고사하고 청을하면 어느누구에게 못해서 하필 남의집 하인에게 청하신단 말인가。자네나 나도 남의집 하인이엇지만은 남의집 하인으로써 무슨 힘이잇나 예이。창피해。나으리마님께서 아마도 망령이 나신게야!』

하며 대단 불쾌한 괴색으로써 이칭의 말을 대답하면서 담배를 빠라 연긔를 길게 내뿜엇다。

『옹。그것은 자네가 모르는말。원래 서울의 유명한 사부대이나 세도 재상에게 대한청은 아레서부터 치켜 올라가는 법이야。가령 말하자면 정부인이나 정경부인의 정부당도 마마의 청이 더 긴한법이야。그러기에 시골 아전들이 제누이나 딸을 서울 대가집의 소실로 보내는것이모두 그버개공사의힘을 비려가지고 재힘을 내자는것이야。자네가 그속은 몰랐네。』

하며 이칭은 청하는 리치를설아는듯이 설명을 해가든중、

『대문을 여시요!』

하는 목소리와 문을찌저거리는 소리가 한쪽 어울리여 크게들리엇다。

家庭医學

口味의變化로 胃腸病을判斷
一般에게必要한獨者診斷法

『허는胃腸病의거울』이라함과가리 大體허를보아 胃腸病이判斷되는것이나 그것뿐만이아니라 혀는猩紅熱、麻疹과가튼때에도直時 徵候를發現식힌다 日本人에게第一만타고하는胃腸病의境遇、혀는 어떠케變化하는것일가……大體健康人의혀는 淡紅色으로若干紫色을띄고、表面에는無數한乳嘴라하는小突起에依하야엷은灰白色을나타내고、푸르게될만큼 붉고 全體가適當하게濕氣를띄우고잇는것이다

이혀가眞一灰白色、俗稱 잇기로一面을덥히後方이더욱두터우면 大膓加答兒인때는 혀청이 마르는것이普通으로 胃癌肝臟癌等인때는 잇기는두렵지안코나 表面이붉게乾燥한다

다음에 胃酸分泌過少에서 慨性貧血을이르켜노는때에는 혀가萎縮하고 蒼白하야 혀잇기가적어진다 이것을ハンター氏舌이라한다

이와가티 胃腸의障碍가잇스면그徵候는 直時혀에도낫타남으로그 變化에따라 病을可及的速히發見하야

治療함이緊要함으

로『하로遲滯로百日의後悔가잇다』하는말을銘心히生覺하며 每日이다한대胃腸病의 手當法으로는從來그症狀에應하야 食慾不振에는消化劑 刺戟劑 [illegible] 下劑 [illegible] 服用하여왓스나 그러나 이러한 [illegible] 一時的으로는 胃腸의活動을 [illegible]하고 消化를助하는效果는잇서도 그것만으로는 根本的治療는바랄수업다 이것은어떠한胃腸病의 [illegible] 正常狀態로恢復되지안으면안이되나、거긔에는活性헤ー뮤菌劑「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이 甚히有効하다、「錠劑わかもと」의服用은、

特殊한培養法에

依하야活性헤ー뮤菌劑를 [illegible] 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依하야 衰弱한胃腸細胞를更生식히며 機能을活潑케함에잇고 따라서이것을服用하면은 病의原因인機能의衰弱이恢復되는結果、消化吸收가잘되고 榮養도充實하야 [illegible]等의 不快한症狀도自然輕快하여지는것이다 더욱이그우에營養素로써 各種비타민、脂肪、아미노酸等이 人體에必須한 榮養素를綜合的으로包含하얏슴으로 胃腸衰弱에서오는 榮養의低下도同時에防備되는것으로 急性、慢性의胃腸病으로 各方面에서効果를 [illegible] 者에게一齊히勸하고저하는 藥劑이다

막어서조흔泄瀉와 낫분泄瀉

食傷이나 寢冷으로因한急性腸加答兒의泄瀉는 腸內의 낫분것을排出하는 自然의妙機라고할수잇슴으로 막는것은禁物이고 피마자油로속히나리게하는것이 조코、慢性腸加答兒、腸結核의危險이잇슴으로속히막지안으면안된다、

活性헤ー뮤菌劑「錠劑わかもと」는食傷이나 中毒인때는胃腸機能을整頓하고 毒素를吸着하는優良한作用이잇고、慢性腸加答兒나結核인때는、消化를도읍고胃腸粘膜을 更生强化식힘으로 이服用에依하야 自然治癒를促進한다

胃酸過多症·胃潰瘍

急性胃加答兒、或은小腸加答兒라 보아도 關係업고 인때에는、혀의中央이붉고、周圍가하야케된다、이變化는 特히胃潰瘍患者에게 뚜렷하고、學問上グレツスネル氏舌」이라하야 相當저저잇다

好、不好가多大한 兒孩는體質이弱하다

아모리榮養價가만흔 食物이라도 그것만 먹는다면 身體全部의 機能要求를滿足식힐수는업는고로 發育이 不全하야 體質도 自然虛弱하야지는것이다

榮養의本義에서

말하면、脂肪、蛋白質、含水炭素、無機物、삐타민等모든榮養素를 適當히配合하야攝取치안으면 아니됨으로 美食과粗食을不問하고 이配合에支障이업스면 榮養不足이나障碍는 이러나지안을것이다

한대兒孩들가운데 肉類鷄卵菓子等을 즐겨먹으나 野菜 小魚等을 실혀하는 일이만흔데結果前者의主成分인 脂肪、蛋白、食水炭素가 過剩하야 後者의成分인 無機物과 삐타민等은 不足되고 發育不良 腺病質 結核質等의 虛弱한 體質이 되기수게웁고 이것이 畢只自然的習慣에서生起인것이면 家庭敎育으로矯正할수도잇스나 이러한兒孩들가운데는 內臟特히

消化器가虛弱하야

消化 吸收 同化 排泄等의 作用을 圓滑하게 할수업슴으로다 健康한食慾이일지안코 嗜好에기우러지는것도不少하므로單只잔자코 叱責만하는것으로는 偏食을 矯正식히다할은 困難하다。

거기에는 실흔 飮食이라도 料理方法을밧구어 兒孩가 조와할만큼한다든지 또는소화하는것가운데섞거서 먹도록 하여주면 그食物에도 맛이들게하는 一方胃腸을튼튼케하야 무엇이나기뿌게먹을만한 旺盛、活潑한食慾을 誘起식힘이肝要하다。거기에는勿論여러가지方法이 思索될것이나 近來가장實用되는것은

活性헤ー뮤菌劑

「錠劑わかもと」의 內服이다。

이藥은 헤ー뮤、사가로미세스菌中에 가장 優秀한 菌種을 活性그대로 製劑한 所謂生物藥으로서、그特長은 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잇다。

이것을 알기쉽게말하면 이藥은 胃腸內에드러가면 生物藥의特의作用을 開始하야、何等副作用업는 刺戟作用으로 虛弱한 胃腸의細胞를 刺戟鼓舞하야 먹은飮食은 거처에서 消化되고 榮養이되는것을 吸收하며 不用物을體外로 排泄하는等、機能을 活潑하게함으로 무엇을먹든지 맛잇고 健康한 食慾을 換起식히게되는것이다

그와 同時에「錠劑わかもと」는가온데 含有한 아미노酸、脂肪、구라고ー겐、칼슘、삐타민A·B·C와가튼貴重한榮養素로서偏食으로 因한榮養의偏을도와주고 發育을促進하야 全身의生活力을 旺盛하게함으로 自然히食物의好不好도업서지고 腺病質、結核質等의 虛弱한兒童도 몰라볼만큼튼튼하게되는수잇게되다

이「錠劑わかもと」는 [illegible] 發賣되고잇다

急性腸加答兒가輕快하야 餘病도併發안해

(長野) 川本隆三

(讃)(養)(實)(話)

小生은、郷村의一中學生이온데 期野外演習을하엿슬때、空腹에다가大食을하야 그리한直後에激動運動을하엿고 腹部를冷하게하엿든터 急性胃腸에異狀을이르켯습니다. 演習을맛치고歸校途中에胃腸이아프고異狀한氣分이잇섯습니다、동모들의敎訓、軍歌를合唱하면서前進하는데 그리한元氣가업섯습니다 (中略) 歸家하자마자 直瀉發熱하고 身體는衰弱하야 [illegible] 한故로비릇이하며 便所에를자조가게되엿습니다다음날도學校에는 休校하고 藥을먹을려고어머님께말삼하엿드니 (中略) 사오든藥이「錠劑わかもと」이엿습니다 連續하지안코 먹엇드니 直瀉가끄치고食事도맛이잇게되고、어지럽든것이 낫고、散步도할수잇게되엿습니다、그런後×日에는 元氣가回復되여當時의苦痛도 꿈가티 잊어지게되엿습니다 (後略)

絶對不變色

松高緞

耐久力强大

물안빠지고
모양조코
폭넓고
질기고
갑싼
송고단
색(백색、회색、밤색
연회색、진회색)

開城府高麗町
松高織 松高緞 松高絣織
株式會社 松高實業場
電話三一六番

各地布木店、百貨店에잇습니다

一秋窓斷想一
無風地帶 (下)
② 白鐵

例를 들면 今日文壇에는 오히려 리알리즘問題가 討論되고 잇스나 그리알리즘은 벌서 過去와 가티 作家가 現實에 對한 生活實任者로서 그 現實過程을 主觀의 意欲으로 統一시키려는 切實한 要望과 要求우에 提唱되는것이 아니고 다만 表面의 世態를 私生活的으로 描寫해가는곳에 滿足하는것 말하면 그 리알리즘은 한退嬰的氣分에서오는自慰的方便까지 低落해가는 곳에 今日文學의 리알리즘의 貫的轉換과 그問題가 잇다고 보여진다!

不幸히 나는 今年의 作品中 過去의 階級文學의作家이든 知友들의 作品中에서 過去의 新派小說다운 二三의 作品을 읽고 低俗沈滯한일이 잇거니와 眞一한리알리즘의 階級文學에 屬해잇든 作家들이 一個의 人情悲劇의小說을 쓰는데도라간다면 그것은 現實에 對한嚴格한 問題를 人間性情의 表面的 部分인 容易한 感傷을 追求하는 卑俗한 리알리즘의 形式이아닐까? 勿論그것은 그들이 즐겨서 取하는 形式도 아니고 더구나 그것이 리알리즘의 길이라고 생각지는 아니할것이다. 배(船)는難破되엿는데 依賴하는 燈明까지가 꺼젓다 어데로 가여야 할까? 손에 닷치는데로 붓잡는것이 흠뻬오는 한때의 필요이엿다 느니라俗諺中에—룹에 빠진사람은 집한대를 붓잡는다!」고.

하나 그보다도 나는 이無風地帶를 文學의 唯一한 安全地帶로서 생각하며 거기에 幾許한데도로 應하려는 態度를 文壇一隅에 目見한다 暴風을 피해온 幾少한 난장이들이 나무그늘아래에서 幸福스럽게 소삭이는것이 무엇이냐?—文學이란 人生과 因緣이잇는것도 아니고 社會와 關係를 가질것도아니다 文字의 魔力은 實로 하나의修飾文句와 形容詞와 文法의適用에 잇다. 「內容은 업서도 文章만 훌륭하면 그만이 아니냐?」(오오!)그러하야 그들의아름다운 文章과 技巧에찬 對話가 今日의 文壇, 그주변한 글라스등을 찬란하게 장식하얏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모양이다! 그들중의 一倭少한 批評人이 요지음 作品의 主要價値를 一二의 形容辭와 自己가 任意로 利用하는 二三語句의 文章에 依하야 評價하고 文句의 洗鍊와 若干의 文法의 訂正으로서 흡족한 作品評을햇다고 自處하는 態度가톤것은 以上에 말한 그들의 無邪氣한 趣味에서 오는 判斷이엿다!

그들에게 對하야 文學이 人生과 無關할때에 얼마나 危險한것이며 文學作品이 그주위의 公衆과 社會에 存在의 理由와 意義를 喪失할때에 무슨 價値를가지게되겟느냐?」고 反問한들 도한 人類가운데 養分을 取하기위하야 기피 뿌리를 박지못한 文學은 아칙이슬이 지자곳 消滅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오직 그들의귀에 馬耳東風일것이다! 素朴하게도 그들이 생각하는것은기름뿌리우에선 나무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오직 枝葉의 茂盛만은 論하려고하는車輔하고 無邪氣한 徒輩들이다!

勿論 그들도 잇다금 惡夢에서 깨여난듯이 心理와 體驗과 實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가 잇다 하나 그들의 指示대로實實의所在를 차저가보면小說家의 家庭描話—例를들면 結婚의 回顧와 花草를 심으든趣味 寡하거되면 그로부터生活의 記錄에서까지도 어隨上과 社會를 떠나 잇는 하나의 植物과기후 人(?)의 幻影과 精神의 作品을 記錄한것을意味하는데다!

이런 現象은 現在와 가튼 無風地帶에서도 文學은 아직 亡하지 아니하다는 例證은 될지 모르다 그代身 今日의文壇에서는 文學이 바야흐로 枯落하면서 잇다는 뚜렷한 表徵이 아닐수업다

第三路가 잇지 아니할까? 생각하면 今年의 우리文壇에는 그것이 無風 地帶와 가티 靜寂한가운데 한가지 華스러운 現象이 잇섯음을 어술수업다 有意한作家들의一部에서 人間에 對한 깊은關心과 興味를 가지고 創作에 對해갓다는것 비록. 그것이 今年中에 [?] 表現되엿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嚴肅한 現象가운데서 到來할新創作의 待望心을 가질수잇다 新實今日과 가티 混亂한 天氣아래 素材을 貼고 거름면서 도리혀 自己가 人間이라는것을 現在自己는 이한층 할 大衆을 떠메고잇는 「에를메스」라는것을 意識할때에 다시금 올내것이아닌가! 混亂와 虛無가 悲慘한 混亂을 일으고잇는 이時代에잇서서 그混亂의 地下를 探照하야 새로운 生活意欲을 樹立하고 그混亂을거두어 生活의 眞實한 出發의動機를 붓잡는곳에 今日의 人間問題가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것이라고 본다 때마침 今日은 휴맨이즘 問題가 各國文壇에 討議되고 잇는 시절이라 우리들은 여기에 커다란主流를 붓잡아 우리들의 文學課題로 삼는곳에 今日의 無風地帶의文壇이 生路를 發見할것이아닌가 생각된다.

리아리즘의擴大와深化
『川邊風景』과『날개』에關하야
(一) 崔載瑞

『川邊風景』은 『朝光』六、九、十月號에連載된 朴泰遠의中篇小說이고 『날개』는 亦是 『朝光』九月號에發表된 李箱의短篇小說이다。두作品이 다 巷間에흔히보는卽興的創作이아니라 오래동안作者의손때를올린듯시픈作品임뿐더러 作者들은 어느一定한意圖를가지고 붓을든듯십다。그리고 그들의意圖는 어느程度까지 作品우에實現되여잇슴을 기뻐한다。

이두作品은 그取材에잇서서 判異하다。『川邊風景』은 都會의一角에옹숙이고 잇는世態人情을그렷고 『날개』는 高度로 智識化한 소피스트의主觀世界를 그렷다。그러나 觀察의 態度와 및措寫의 手法에잇서서 이두作品은共通되는 特色을가지고잇다。卽그들은 될수잇는대로 主觀을떠나서 對象을보라고하얏다。그結果는—朴氏는 客觀的態度로서 客觀을보앗고 李氏는客觀的態度로서主觀을보앗다。이것은 現代世界文學의二大傾向—리아리즘의擴大와 리아리즘의深化를 어느程度까지 代表하는것이니 우리에게大端히興味잇는問題를提供한다。

朴氏는 客觀을客觀的으로보고 李氏는 主觀을客觀的으로 보앗다는말은 讀者에奇異한感을 줄는지도모르겟다。그러나 모든自然現象을 感傷的으로바게볼줄몰으든 一流詩人이잇는것과同時에 自己自身의心理作用을 科學的으로(勿論相對的의말이지만) 觀察할수잇는 心理學者가 잇슴을 생각하면 이말은 決코一片의 詭辯이아님을 알것이다。어떠한 特殊한必要以外에 主觀世界와 客觀世界의 區別을 抹殺할은 文藝批評에잇서서 危險한것이다。그러나 作家가 主觀世界를 材料로쓰면 主觀的이고客觀世界를 取扱하면 客觀的이라는 素撲한論法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廢棄치안흐면아니될것이다。●그리고 客觀的材料를 쓰는作家는 다만그한가지理由로써 主觀的材料를 쓰는作者보다 越等한 待遇를밧게되는 現代의 傾向을 생각할때 우리는 이素樸한 論理的偏見을 미워하지안흘수업다。小說作家가 藝術家인以上 그에게 잇서 主觀世界와 客觀世界새에 價値의優劣은 업슬것이다 다만 作家의 遺傳이라든가 敎養의 힘에 支配되여 한 作家가똑가튼 親密性을 가지고 두世界에 다가티 接近할수업는 事實만은 無可奈何다。여기서 우리는 精神分析學者가말하는「心理的타입」을 文藝批評에 應用할 必要를늣긴다 人間의欲智는 세가지 타입으로 區別할수잇다한다。行動의動機가 늘外部에서오는사람—그것을『外向的타입』이라고 그들은말한다。그와反對로 그動機가 늘內部에서오는사람을 『內向的타입』이라고한다。이두타입은 말하자면 極端한例이니 그中間에 內外어듸로서나오는中間타입이 잇다。이것은數로보아 最大하나 그生活形態가 平凡하야서 우리의興味를 끄을지안는다。外向的精神은 늘外界를向하야옹속이고 또 客觀物새에잇슬때만 산듯십다。그와反對로內向的精神은 늘 自己自身의內部世界를省察하기를즐겨하고 또 內部世界에잇서서만 安定과 快感을늣긴다。우리는 藝術家에向하야 이두世界中어느하나를取하라고命令할수는업다。藝術家는 先天的으로 그精神이志向되야잇고 또그의藝術의動機는 어志向가운데에서만생겨나니까。그러나 우리는 藝術家에向하야 誠實을要求할資格은잇다。外部世界거나 內部世界거나 그것을眞實하게觀察하고 正確하게表現하라고。이것은 卽 藝術家에對하야 客觀的態度와리아리즘을 要求하는데에不外하다。藝術의 리아리티는 外部世界 或은 內部世界에만 限해서잇는 것은아니다。그어느것이나 客觀的態度로서 觀察하는데 리아리티는 생겨난다。

問題는 材料에잇는것이아니라 보는 눈에잇다。主觀의膜을가린 눈을가지고 보느냐 아모膜도업는 맑은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데서 藝術의 性格은 規定된다。『膜을 가리지안은 맑은 눈』이란 말에 論爭은 集中될것이다。그러나 키네마에 잇서서의 캐메라의 存在는 이問題에對하야 우리에게 적지안흔暗光을던저준다고나는생각한다。사람의눈이 캐메라와마찬가지의機能을發揮치못함은 말할것도업다 그러나 藝術家가 될수잇는대로 캐메라的存在가되라고하는努力과 및 그努力이어느程度까지 成功한實例를 우리는 現代文學에서 얼마던지求할수잇다。

郊外

實存哲學序說
—하이덱가를中心으로—
② 朴如涯

存在는 存在者가 아니라면 그것은 無와가튼것밧게는 못될것이다。하이덱가에依하면 實로存在는 「無」(Nichts)이다。그는 「形而上學이란무엇이냐」라는 論文에서 「純粹存在는純粹無와 同一하다」라고한 헤—겔의 命題는 正當히 成立한다고 말하엿다。(「形而上學이란무엇이냐」二六頁) 그러면無를 우리는 如何히 把握할것인가。存在者에對한 學問은 結局 存在者만을 取扱하는것이고 無를取扱하는것은 아니다。大抵學問은 無에對한 思想을 업시는 成立할수업는것이다。存在者에對한 學問은 自己의 本質을 究明하려할때 그것은無에게 援助를 要求하게 되는것이다。即 「그가 拋棄한것을 要求하게되는 것이다」(同著 二〇頁) 그러면 無의 本來的意味는 如何한 것인가。元來 論理學은 存在者의 否定으로서 (存在者의 全體性의否定으로서)無를 規定해왓다。그리고 無는 論理的否定活動의 結果로서 알려지는듯이다。

도리켜생각한데 이否性이란論理的活動은 本來的으로 無에 接近할수 업는것이다 何故냐하면 否性의本質은 「어떠한것」(或者)에 對한 思惟이까닭에 만일 無를 思惟한다고할때에는 無는 「한어떠한것」으로서 形成되여 지는까닭이다。이와가티 否性에 잇서서는 無는 自己自身을 傷害하게 되는것이 아닌가。이곳에서 우리는 無에 接近하기爲하야 어떠한 다른 새로운方途를 생각하지안흐면 안된다。

하이덱가는 無에 接近하는方途로서 無의基礎經驗(Grunderfahrung des Nichts)을생각하얏다 無는無의 基礎經驗에서 바로소 顯示되여지는것이다。如斯한 無의基礎經驗은 不安이란 現象으로서 表示되는것이다。不安속에는 所謂「……부터의 後退」(ein Zurückweichen von……)가 잇는것이다 이와가튼것은恐怖에서도 發見할수 잇스나 恐怖에 잇서서는 어떠한 規定된 存在者 例컨대 暴風이라든가 侵入者와가튼 單一한 存在者에 對하야 恐怖를 늣기는것이다。이것에 反하야 不安에 잇서서는 이存在者 저存在者가 아니라 全體에잇서서의 存在者의 全體(ein Wegrücken des Seienden im Ganzen)가 우리를 壓迫하는것이다。不安現象의 特徵은 「全體에 잇서서의 存在者의 滑落」(Entgleiten des Seienden im Ganzen)이라고 말할수잇다。無는 이와가튼 全體에잇서서 滑落되는 存在者와 一致하야 우리를 壓迫하는것이다。

그러면 大體 이無란 如何한것일가。無는 어떠한 對象도 아니요 또한 一般的으로 한存在도 아니다。하이덱가는 無의 本質을 否定하는일(Nichtung)이라고 말하얏다。(「形而上學이란 무엇이냐」一九頁)。

이規定은 無가 한活動 或은 事件(ein Geschehen)即 否定하는事件임을 推則시키는것이다 否定한다는것은 全體에 잇서서의 滑落的存在者를 拒否的으로 指示하는일을 意味한다。無는 自己에 侵入하는것이 아니라 도리혀 本質的으로 拒否的이다 이 自己로부터의 拒否가 全體에 잇서서의 存在者를 滑落시키면서 指示하는것이다。全體에잇서서의 滑落的存在者를 拒否的으로 指示하는것으로서의 이拒否는 아직까지 숨겨저잇든 全혀奇異한것에 잇서서의 이滑落的存在者를 한他者로서—無에 對立하야—顯示하는것이다。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 十一月十日
(薄謝進呈)

一漢詩一
題 白頭山
押 峰
桐岡 考選

佳作之一之六
仁川府松峴里 孫鼎夏

萬年頭雪丈人容
下土群黎拜祖宗
塵白己遮神市遠
瑞雲長向帝壇封
天池水紅漾蓮朶
北斗星低紫玉峯
靈氣古今成化育
震東民物自陶鎔

讀者社交室

▲永川文兄이시여? 兄과作別한지도벌서 四年餘가 지나지안슴니가 昨年尙州農蠶學校在學時는 恒常書信이잇섯스나 兄이卒業後故鄕인 慶山에가잇서도 累次書信잇섯사오나 其後아무書信업드니 日前永川郡이라고 書信이잇섯스나 住所不明하와 아직것一字書信업기모옵하와 社交欄을通하야 알리오니左記住所로兄의消息알려주시기를밋나이다 慶北醴泉郡醴泉面南本洞 千壽岡

▲讀者諸位께告합니다!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發刊인(普通文官講義) 全篇附錄을 讓渡하겟는데이계시거든 本欄을通하시여貴氏의住所氏名과 價格을一擦通知하시면感謝하겟소이다

▲錦湖坊坊谷에 散在한 크리스챤아 (靑年을부릅니다) 이곳을 位置로 明年正月부터 「救援」이란 月刊宗敎誌를 出版하려한다 資力問題로苦하니 未世를 理解하는 兄弟로合力코자는분은 左記住所에 意思를말하라 咸南新昌港二三三 金道天

▲市內在留하는 興鎭이에게!! 너의二十五日付書信은바닷다。身體健康別故업기를 千萬祝禱하며 너의希望을爲하여 助力하겟스니 만나서 어와이하자 相逢場所를 略別하라、兄으로 濟泉里町一讀者

▲求職! 本人은 市內某專門學校二學年에 단이는 二十一歲靑年인데 市內에서 家庭敎師자리를求합니다 過去에 三年間해본 經驗이잇사오니 뜻이계신분은社交室로알려주시기를바랍니다 (市內錦町8生)

▲養子로! 事情으로因하여養家를求함 本人은高等科卒業 當年十八歲 社交室을通하여 告示함 望家生

▲異國에小葉子! 四年前南原에서 갈린小葉子야 지금은何處에서 무엇을하고잇소? 日本內地로아갓스면 近況이나알려줍시요! 그때에 北靑金明玉

▲普通文官準備生에 準備書籍을廉價로讓渡코저 社交室에通하야 願하는貴兄에게 社交室로通하야 問議합니다 弟는普通學校卒業後普通文官試驗에合格되여 一日이라도 速히官界에 進出할마음은 有하나家勢가 極貧하야 新聞準備를도는職人할 形便도못되고 貴兄과如한廣告를選擇하는中 好機會로貴兄의廣告를知하야 晝夜得婚과如히반갑사오니 一日이라도 速히 社交室에 通하야 記載하시籍代金을 알려주시기를 新聞만보고期待합니다 高敬面 一準備生

▲舊慶新人文壇에發刊하려는 同人創立을하겟나이다 文學에 뜻을둔同志의通信을기다리오며 投稿를歡迎합니다 揭載者不要하는 原稿는返送합니다 京城府阿峴町三六七 崔[?]東

▲九月三[?] 京城府[?]町 李生[?]

▲求職! 本人은 市內某專門學校...

▲本報愛讀諸氏께告함 今番本人이 左記書册을 無償으로 讓渡하겟사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 書籍名記入하서서 送金하여주시면 곳物品을 보내드리겟습니다
一、李光洙氏作『無情』價格一圓八十錢品을 九十五錢에 二、李相協氏作『無窮花』一圓三十錢品을七十錢에 三、李相協氏『貞操怨』二圓品을 一圓五錢에 四、朴魯埈氏作『遠續의秘密』一圓二十錢品을六十五錢 送料는本人이부담함 京城府 阿峴町九一 朴浦圭

▲答 求宿所를 求하신다니 孝悌町一二四一番地가 여염집으로房이 잇사오니 有意하시거든 一次問議하시기를 바랍니다 孝悌町

▲本人은女子學校를 卒業하고 지금은 某試驗을目標로獨學을하고잇는女子이오며 普通學校學生 一人을 一日數時間式指導하고저 하오니 有意하신분은 社交室을通하야서 住所를알려주시오면感謝하겟습니다 市內一女人

▲咸南永興邑都井里 朱福O씨께 드림—大體 『그女子의一生』을웨안보내느냐말요! 至今까지 數多한 督促片紙를 하엿슴에도不顧하고 都是아무런回示가업스니 웬일이시오? 所謂文人이라는이가 너머나 沒常識하지안소 生은 四海의 文冊들을爲하야 目下文藝書類를 賣集하는바 貴下때문에 이 册은 만흔 諸友에게 드리지못하올바 甚히 안타가워하오 빨니보내주심이 如何? 全北金堤邑 月城

▲養兎經驗이 有하옵신諸位에게 問議하옵니다 앙고라種의一年間의剪毛總量어 幾匁假量되오며 以上과 베르지앙種一年生 普通重量은 幾何나 되옵는지 本社社交室을 通하여 下敎하여주옵시기 大望함

▲國境玄生에게 高句麗銅製影刻火爐를 讓受코저 하오니 左記處로 詳細通知하여 주시오 그리나 遠隔地에서 此等物品을 如何한 方法으로 賣買할지 實로漠然하오 慶南昌原郡昌原面召沓里 金基庠

▲벗서 十年前이란 아득한 녯이야기와 갓슴니다 培花女高卒業하고 一個消息이업는 金富榮을 알고저 各方으로 차저헤맷스나 終是못한 애닯어하는 사람이오며 이땅에 게시거든이 讀者欄을 通하야 住所를 알려주서든지 그럿치아느면 成의前집으로 편지하서요 寒風樓生

▲南蓮兄님 그간安寧하십니가 弟는金剛으로 다시이곳에와서무사합니다 昨年春節에 作別以後 兄이奉天에서 [?]에게片紙한것보고는 至今것 消息을몰라 答答하와 此紙面을빌엇사오니 滿洲에 게신여러讀者中에右人에住所를 아르시면 鄙地로通知하야주시옵을 바랍니다 謝禮로 [?]하야들이겟습니다 北平市東四十一條六十七號 金[?]俊

▲讀者여러분 未安합니다만左記와가튼 事情이잇사오니 手苦를 [?]論하시옵고 下敎하야주시옵기를 大望합니다● 長久한 歲月로 [?]外陰三寸에 附骨이生겻는데 그것이 步行할때면 大端한苦痛을 주는것입니다 여러가지方法과 妙藥을써보앗스나 何等조흔結果를 못엇고 오직晩餘으로 날을보내나이다。어느때인가 日本某新聞紙上에서 附骨을 녹여뻰다는 記載를본듯하온데 只今그藥名도 發賣所도 記憶에남어잇지안사와 퍽답답하외다 그發賣所나 或은다른妙한 方法이잇삽거든 左記住所로直接 下敎하야주시옵기를 仰天大望이올시다。咸南定平郡長原面洞大里 李靖永

[?]어려고만하시고 저에게 學生을 誘를 付託해주신 先生이여! 당신의 아름다운뜻은 무엇가[?]하오며 또 내에게 퍽 重要하게 써질것을 감사합니다 先生의 住所가 어데인지 아르켜주서도 조흘것가튼데요……● 慶北三丁目一五二의一號 金鶴旭

性的欠陷은 男子의恥辱
速히正常回復을圖謀하라

其唯一한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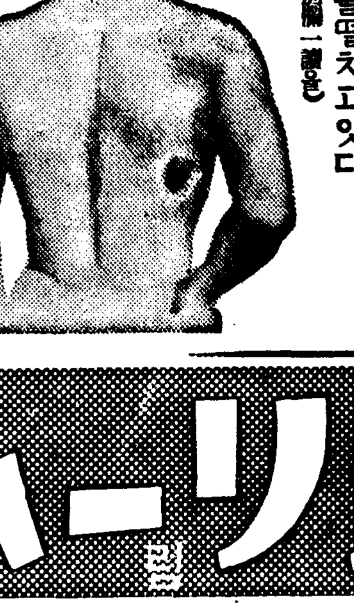
男子가되여 生O器의 故障이잇스면 全然男性으로서 資格을일코 妻帶할수도업서 男子의 恥辱일뿐아니라生理的에도影響이밋처體力腦力共히衰하야 落伍가되고만다 人生이 때여나이러한 不幸한일은 업다

性器短少(又는屈曲彎曲等)은모도 細胞發育不良의 結果로、이것을 長大正常식힘에는 從來大端困難하엿섯다

또는 不自然行爲、過淫、腦神經衰弱等에 原因된다 各種性的機能障害에對하야는 從來의 姑息한療法으로는 그效果는거진볼것이업다

이러한 性的缺陷에對한 唯一療法이 米國醫科大學 敎授ホリツク博士에 依해서、創見發表되여、그原理에基한 世界的療器가即「ホリツクフク眞空水治器」다

本器는 眞空水治의 併用에依해理學的으로 短少性器의 發育과機能復活의 二重作用을 營爲하고正常健全性器를更生식히는 偉効가잇다 實로性的缺陷者에게 天惠的療器로서 이제漸漸好評을떨치고잇다 (詳細는別欄一讀을)



性器發育機能回復의 二重作用이잇는
◇ホリック眞空水治器

그作用

本器는 理學的眞空吸引力과水治療法을 巧妙히 應用하야 性器細胞의 發育과性的機能의 復活을 促하는 二重效果를 兼備하얏고 그作用은 發育停止狀態에잇는 性器에多量의 血液을流集식히며 新陳代謝機能의 旺盛을 圖謀하고 細胞의蘇活과 血液榮養에依한 部分的發育을 다함과 同時에 理學的エンツンテユング作用을 이르켜 生殖力의 復活과 性ホルモン의內分泌旺盛을 促하는故로 一切機能障害를 回復식히는 効力이잇다 이點은 벌서 醫學博士五十餘氏의 實驗으로 證明하고잇는바이다

發育不全

先天的性器發育不全(短少屈曲、彎曲)又는 後天的發育異常、發育停止等—이것은 主로梅毒、淋疾、生殖器疾患等에 因하야 生殖機能의 衰退를이르켜 全身的으로 影響되며 體力、腦力의衰하야 終末에는內體的、精神的으로 男性의 資格을喪失함에이르다 이것을最大正常으로만드는것은自古以來로大端困難하얏섯스나이제그唯一의療法인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應用하면、各部分的「輸血」同樣의效果에依해、漸次細胞의蘇活、筋肉의發育을遂行하는結果가되여、短少性器는 長大하고 屈曲、彎曲等은正常整型이되여 男子의資格을 가출수잇는것이다。

機能障害

生殖器機能障害(陰萎、早漏、遺精、夢精等)의 原因은 主로不自然行爲、過淫、腦神經衰弱、花柳病、炎性諸疾患等에原因되고 또한性器의故障은 卽時全身各部에影響되며 떠욱活力의源泉인生殖ホルモン의內分泌缺乏을招來하는故로 人體綜合ホルモン의調和를缺하고 體力腦力의衰退가甚하며 乃終에는病弱頹鈍한廢人이되여 一生을落伍者가되고마는悲慘한結果가되고마는것이다 이에對한從來의 姑息療法은單只一時的效果도 미들수업는것으로 到底히根本治療는 期待하기어려운狀態이엿스나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效用은 細胞의蘇活과相伴하야 生殖腺ホルモン의 內分泌를 旺盛케하고 生殖力의復活을促하는故로 機能의障害를回復식히고 滿足한天賦의 幸福을享受할수잇는同時에體力腦力과더부러 健全優秀하게되면 明朗歡喜로希望의 前途에進展할수잇는것이다

◇ ◇

男子性的缺陷이一生의 大不幸이된에心憂한분은 하로속히「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偉大한 效果를體驗하라

本器는小型堅牢、使用法簡易、自己가 秘密히 一日十分間使用으로 效驗을어들수잇다

圖入冊子無代進呈

左記에依해 注文次第、使用說明書添付、匿名發送함

希望者로 申込次第『性의知識』이라한新刊圖入冊子를 匿名無代發送합 지금곳 申込하시라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奬

登錄商標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內地二五錢 朝鮮臺灣五五錢
包莖 一切斷하지안코自手로敎容히成形한다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內地一五錢 滿鮮臺四五錢
匿名發送합니다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說明書添付—
◉效果不完全한僞物이잇스니꼭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請求하라

東京市芝區神谷町三八
東京 新療法研究所
振替東京七七三九 電話芝三二三二·

ウテナ クリーム

適確한整肌料!!
惡質인벗거름
여드름、부룸을
爽快하게解消식혀서
배루베의柔肌를
創造하고强力美肌素
를含有하는
果精크림입니다!
婦人의化粧料에도
또는化粧下로서도
最適한것으로
男子의面刀後에
使用하면
面刀독도나지안코
實로快適하고
心氣가明朗하므로
大端한好評!

一家에반드시一瓶의
常備를
推奬합니다
¥.30 .60
東京 久保政吉商店

"寶石과女賊" 줄-지·아-싸-보-監督 가-도룬-드·마이얼、떼이·미레드主演 파라마운트作品

演劇協會創立公演 『守錢奴』를 보고 (四)

羅雄

또그巧妙한對話의進展가운데는 當時 宮庭劇場的節奏로線이 纖細하고 攸長한것을 未免함으로 오늘의 觀衆은· 그가늘고 긴- 美妙한明暗의 뉴안스를 곳感知케못할뿐더러 支離한 늣김까지 갓게할 念慮가잇섯다。그러한場面을 朝鮮의觀衆이 理解할수잇도록 좀은 터치를 넛는다든가 또는 簡潔히全體를 統一시켯드면 더큰效果를 나타내엿스리라고생각한다。

臺詞에도 俗語로 고칠라고努力은하엿스나 全體로 洗練된會話體로 統一되지못하엿다。

演劇과 戱曲사이에서 仲介的工作을하면서도獨創的藝術家인演出者의 任務는 戱曲에內包된感情 思想 情調를 感知하는同時에 그內面的形式 舞臺的表象을 마음의눈과귀로 晤得하야 舞臺에 그內容에 相應한 一定한樣式的基調를 浮彫케할것이라는것은 너무나 常識化되여잇다。그런데『守錢奴』에 잇서서는 여기에對한 配慮가 不分明하엿다。

大體로 演出者의 努力이 것合을 이演劇에서 차저볼수잇스나 部分的으로 不注意한 모좋이가 나타나보이다

모리엘의 戱曲은 리알한樣式을 가추어 舞臺에 表現하는데 모리엘의가진 숩은諷刺와 揶揄가 우숨의 빼을쏘고 浮彫的으로 나올것이라고 생각된다。그런데 이번演劇에는 裝置가 얼마간 樣式化되엿고 主人公알파곤의 演技가 얼마간 카리카튜어되엿다。이點도 勿論조타。現代人의 世界觀如何로서 알파곤과 가튼 人間을 戱畵化할도無妨하나 그러타면 그周圍에 나오는 人間들도 그러하여야할것인데 그러치못하야 全體로 不統一한 感을 주엇다。나는 이러한意見을 가젓다。알파곤을카리카튜어하지말고 리알하게 表現하면서 輕薄과 客嗇보다도陰凶과 食慾을 爲主로 表現하엿스면 痛切한씨니크한 우숨이크지안을가 한다。

그리고 重要한人物의 性格이 分明히 浮彫되지안은듯십다。알파곤은 輕薄하고 인색하고 야멜지고 얌체업는 人間으로는매우 조핫스나 그의 아들클레안트는 그의 하는말과 性格과는 너머나 背馳되엿다。그러한바보가 아니고 아버지의 乖僻을알며 賭博과奢侈를 일삼는 近代的머리를가진 人間이라고생각한다。下人 라푸레스의 配役의 미스캬스트는 確實히 演出者의 不注意라고생각한다、端役이면서도 重要한 그役의性格은 野卑하고粗■하면서도 順原하고 正直하고復讐心이잇스면서도 人情잇는 中年老僕일것인데 도모지 그게表現되지안엇다。

그리고 이劇全體를 一貫하는 모리엘의 機智와諷刺가 對話와 傍白、對話사이사이에瞬間的으로 번득이는 心理의明暗에서 차즐것인데 거기에對한 屈折과抑揚이 不分明하야 그대로 稀微하게 넘기部分이 만헛다。

이러케列擧하고보니 欠만을잡으라는것가트나 守錢奴와가튼방대한 戱曲을 어느程度까지 成功的으로 公演케한 演出의 努力에比하면 이몃가지缺點은 大海의 모래알과가튼 感까지 갓게한다。

演技에잇서는 高利貸金業者알파곤(李化三扮)이 客색하고 沒人情한 性格을 如實히 表現하엿다。李化三君이 알파곤이지 알파곤이 李化三君이지 모를만치 그至難한役을 가장洗練한 演技로 表現하야 朝鮮에서 처음보는 第一人者的地步를 것게하엿다。

欠이라고하면 台詞에 抑揚의 若干 不自然한 點이다。아프로 그러한 點의留意하야 더큰地步를 닥도록하기를 바란다。

이날演技者中에서 仲媒老婆푸로디 (姜貞愛扮)이 다음으로 조흔 演技를 보엿스나 台詞를 더能熟한 抑揚으로 마스터만하엿드면 더큰効果를 나타내엿스리라고 생각한다。

바렐(朴學扮)은 俗卑한 人間에게는 阿諂으로 對하는것이 卑하야 處世道로 알며 罪는 阿諂하는 人間에게 잇지안코 그러케하게 만드는 人間에게 잇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낙업는 춤을 추는 人間으로서는 無難하 表現되엿스나 좀더 그러한 人間이가진 明暗을 기피 맛드러면한다 여기에는 점잔은 人間으로 一貫되엿슬뿐이고 바렐과가튼 人間의 가진모리엘의『미산트로프』의主人公과 反對되는 性格이면서도 그와相似한 괴로움이 조곰도 表現되지안헛다。이人間을 通해서 알파곤을 嘲笑하는 모리엘의 우숨이 매우 稀薄한것이 遺憾이엿다 紹介乘者시모도 이분이 演한모양인데 매우 조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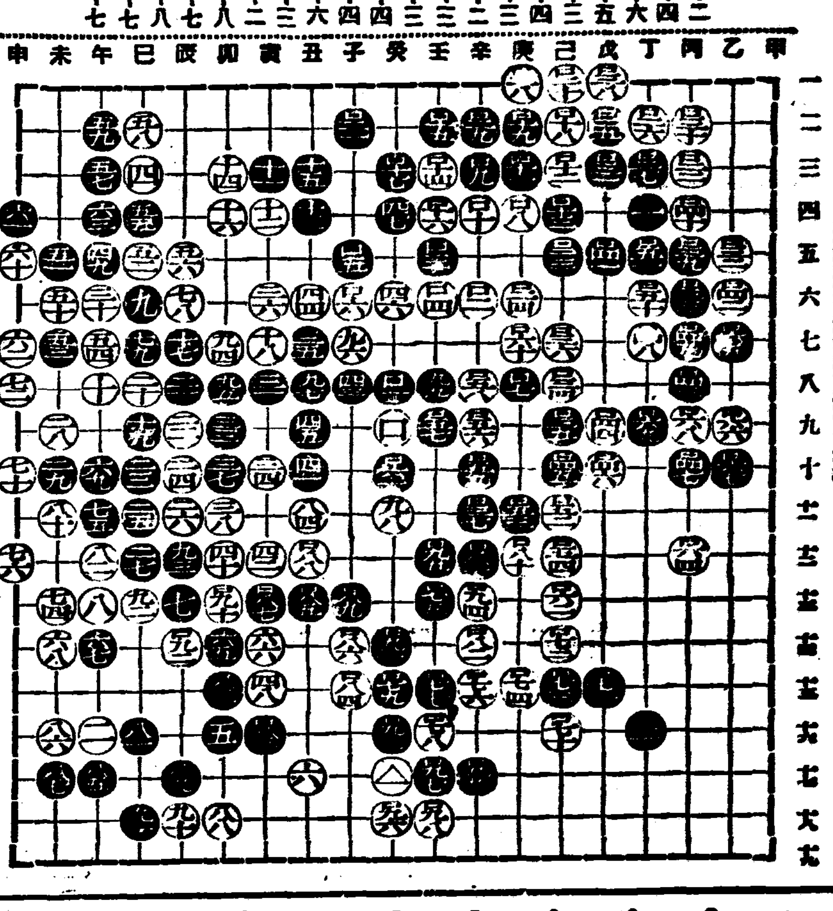
城大만도링演奏會

京城帝國大學 學友會의 만도링部에서는 城大講堂에서 今十月三十一日 午後七時半부터 第十四回定期演奏會를開催한다고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鄭濟源
黑先 李淸性

●一八一 辛의十二
○一八二 辛의十四
●一八三 寅의十六
○一八四 午의十五
●一八五 丑의十三
○一八六 子의十四
●一八七 寅의十三
○一八八 子의十二
●一八九 子의十三
○一九〇 卯의十三
●一九一 癸의十四
○一九二 辰의十四
●一九三 癸의十六
○一九四 辛의十三
●一九五 壬의十二
○一九六 癸의十八
●一九七 壬의十七
○一九八 壬의十八
●一九九 辛의十七
○二〇〇 癸의十七



蔡極文氏評日

黑이 巳午十二區에 一部는 喪失하엿스나 癸의 十六으로 進出하니 此所謂 大馬不死로다 全局優勢난 白便에 多在하니 勝敗判斷은 不遠開陳的할을 自認하노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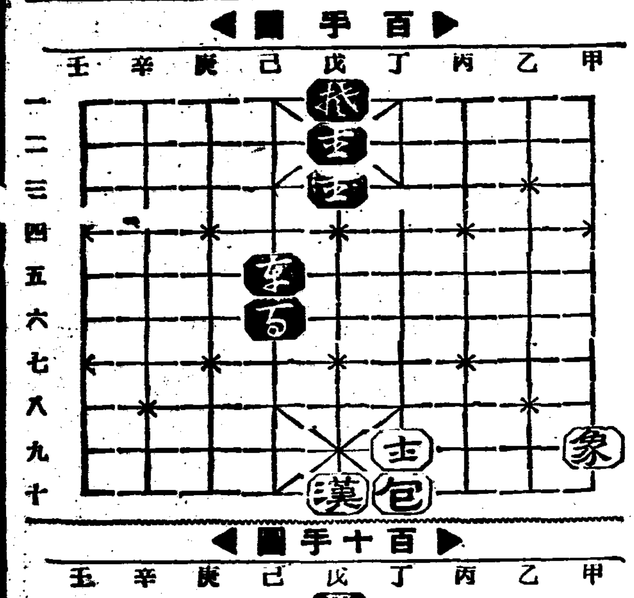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漢先手 兵一減 李在鳳
楚 盧世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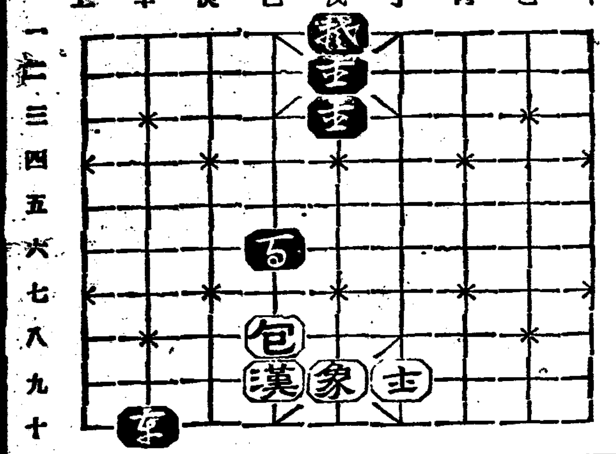
(勝楚)

甲九象—丙六 戊五卒—辛五
己五卒—戊五呼將 戊十漢—己十
丙六象—戊九 辛五卒—辛十呼將
己六包—戊八 己十漢—己九
丁十包—己八 戊八包—己六

◀ 百手圖 ▶



◀ 百十手圖 ▶



라디오

三十日 (金曜)

◇午後六時○○ 兒童劇
『아담』 全一景
貞姬……韓寶珮
順玉……金鈴蘭
惠順……韓瓊錫
貞姬어머니……李白卿
뒷집할아버지……金銀星
指揮 두루미
效果 金相德 劉根春
伴奏 金德子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講演
『敎育勅語渙發日을當하야』
第二高普 鄭義澤

◇同七時三○分 講演
模範農村을訪問하고서 (二)
京畿道農會技手 南基徹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公道難 (나)唱劇調
…春香傳中 獄中歌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分 流行歌 一、丹楓祭 朴英鎬詞 金松奎曲 (金李) 二、알어달나우요 同右 (李) 三、꼿서울 朴英鎬詞 古賀政男曲 (金) 四、感激의그날 朴英鎬詞 金松奎曲 (李、金) 五、離別前夜 同右(李)
金海松 李蘭影 DK管絃團

◇同八時五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韓文輔

◇同九時一○分 압산타령
一、압산타령 二、뒷산타령 三、경발님 四、산염불
金順紅 金蘭香

第一放送

◇午後六時 이야기 宮村履作
◇同七時三○分(東) 講演 河野省三
◇同八時(大) 라듸오小說 千葉早智子
◇同八時三○分(東) 詩吟 雨宮國風
◇同八時四○(東) 地唄 米川文子外
◇同九時(東)(連續)探偵드라마 (第二夜) 土井江南外

三十一日 (土曜)

◇午後○時五分 놀양外 一、놀양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女性의體格向上에對하야』
梨專講師 朴奉愛

◇同六時 코-넷獨奏와피아노獨奏
코-넷獨奏 WE노-벨
피아노獨奏와伴奏 헬렌、폭쓰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週間時事 朝鮮日報社 成尙勳

◇同七時三○分 兒童喜劇『김첨지와 허수아비』一景 配役
―어린이와家庭의저녁―
여우甲…朴鍋鎭 同乙…孫允烈 同乙…朴景順 김첨지…尹長燮 양서방…朴民化
演出 朴興珉 伴奏 陸好吉 效果 効果班 童心會

◇同七時五五分 피아노獨奏
一、아침의祈禱……메진作曲
二、悲哀소나타……베-토벤作曲 第一樂章

◇同八時五分 野談 尹琦善

◇同八時三○分 女聲合唱 "까마귀의꿈" 申鼎言
一、二部合唱 로-렐리-미…질혤作曲 二、獨唱 매기의追憶…버터필드作曲…鄭玉珠 三、二部合唱 자장가…라우벨드作曲 四、二重唱 가을밤…월이암스作曲…朴玉珠 李順福 五、二部合唱 시골音樂隊…웨-버-作曲
京城保育合唱團

◇同八時五○分 大笒과洋琴 피아노伴奏 李興烈
佛과打令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時○五分 (東) 和洋樂合奏
◇同六時二五分 (京) 講演
◇同七時五○分 (東) 管絃樂
◇同八時三○分 (東)連續探偵드라마

一日 (日曜)

◇午後○時五○分 時調와音律
一、時調、(가)平時調 (나)辭說時調 二、音律、(가)平調會相 (나)三絃도도리
時調와洋琴 李承煥 短簫 崔壽成

◇同一時二○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어린이科學 『律樂이야기』 朴吉龍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正勤正斷과安樂行』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七時三○分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洪笑月

◇同八時 라듸오드라마『女必從夫』配役 姜主事…申左硯 鎰氏…白銀姬 英鎬…(그의아들)宋在善 貞喜…河邊玉 同人會
演出 申左硯 效果 宋薰

◇同八時三○分 唱劇調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沈淸歌 劉弄珠 鼓手 丁元變

◇同九時 宗敎音樂 一、찬양하세…월손作曲(女聲合唱) 二、금문을두다리신다…黑人謠(四重唱) 三、성모마리아…아-카델트作曲(四重唱) 四、주를떠나서…로우리作曲(混聲合唱) 五、전능왕오서서…로렌쓰作曲(女聲合唱) 六、주님의크신은혜…리리나스作曲(混聲合唱)
監理敎神學校讚揚隊 指導 高鳳京

◇同十時 鮮滿交換放送(新京二重放送開始祝賀放送) ―京城으로부터―
二、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가)管樂 萬波停息之曲(管樂、大笒、奚琴、唐笛、杖鼓、坐鼓)
(나)合樂 長春不老之曲(編鐘、編磬、牙箏、奚樂、大笒、奚琴、唐笛、杖鼓、坐鼓)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
朝鮮放送協會理事長保阪 久松

第一放送

◇午後六時○○分(大)兒童劇과童話劇
◇同七時三○分(東)講演
◇同七時四○分(東)物語
◇同八時○五分(東)歌謠曲
◇同○○分鮮一○鮮滿交換放送

★曆★

十月卅一日 (土)
陰戊戌九月大(十七日)
丙戌·土·胃·建
●祭祀移徙上樑實時安葬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舊二日)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生生한젊은살결!
東洋一의 花王비누로 씻는분의살결은언제나 아름답고 潤澤이납니다

花王비누의作用은언제나 穩和하야純粹度九九、四%—世界最高標準의品質입니다
이로부터는皮膚가거치러지기쉬운季節—特히婦人과어린애들의柔軟한살결에는반듯이花王을使用해주십시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咀呪할災亂의瘡痍 豫想보다도더慘酷

淳昌地方五割減豫想은빗말

三萬農民死線에彷徨

【淳昌】 전북순창지방에는 금번범람에 처음보는 가공재해로인하여 제군의농작피해가 예만원을돌파한다함은 귀보한바이니와 해지추수에 착수한 어떤예와서는 예상이외로 미흡측을당한현상으로서, 지난구월말현재로 전군사실감수를 예상하든것이 지금에는 오할이상의감수를 면치못하게되엿다 그중에서도 제해가 제일격심한곳은 쌍치, 복흥 구림동계(雙置, 福興, 龜林, 東溪) 사개면으로 팔할이상의 전멸상태라고한다 지난일년동안에 볼볏를끼로, 피땀을흘려가면서 가진 고통을 겪거오든농에도 오추수 기한미를 소홈이 기달려왔든바 로도가 할원농에서아지고 말햇스며 미는전호드는 일조에 황무지가되여버리고 졀국은 분이막연한농자까지 찾지못한 현상이라는바 전괴사개면을 필두로 륙천여농가에 삼만여남녀농가가 생활의 근거를 일허버리고 귀어산상에 방황하고 잇는중 실상에가상케되엿다 지난이십칠일 새해부터을 한이엄습하고 도다시 일대풍후가 내리게되여 재해민의 비참한현상은 문자로써 형언할수도 업다하며 아무것도업는 적수공권에 채무(債務)독촉만 심하게되여 그들의생활전도가 실로동 전의동화와가다고한다

學用品代를節約 罹災民을同情

【淳昌】 금번재해로 삼남지방농수해의 참혹을 신문으로 휴오한 교에서선생님의 말삼으로 보통학교 어린아동의 귀에까지도이히 들리여 동포에에 따오르는어룬 다운생각이 발하여서 경제에자유가업는 아동들임으로 학용품을 절용하야 그중에도 오륙학년이 주로 돈들이모힌든 이원오십이 전을 수해동포구제금에 보내여 달라고 지난이십오일에 본보 안분국에 의뢰하엿다

任持再任認可로 爭奪戰遂解消

【公州】 충남공주군계룡산(鷄龍山)갑사주지(甲寺住持)의 정임문제는 국히의회하상려에잇 더니 선거피선된재옥(林)씨는 부정투표문제로 도교당국의 인가를하기되여 뻘 지난 일주지는 당시보도한바이니와 다한은 주지재선거투표를하엿 작되에 전주지인 박정선(朴正善)씨가 다시피임되여 당국의 인가장을밧고 진산식을 하게되여 궁흉이래 부지되면하든 주지쟁탈문제는 그만일소되여 평 온무사하게 되엿다한다

特志家李基璉氏 二千五百圓喜捨

教育機關等에分配하여달라고 本報咸興支局에依賴

【咸興】 함흥부소화정(昭和町)이 정목고리재영(李載榮)씨의 사손 (興南)리기진(李基璉)(三)씨는이 심구일그조부인리재영(李載榮)씨 의유지(遺志)를밧드러 그유산중 으로 현금이천오백원을 사회사 업에허사하기로되여 그중일천원 은 오백여소작인(小作人)들로서 조직된상조계(相助契)에 보내여 고 주와의산재정(興山)씨는 상도하야 졸업이현 의현재과 이심여만원의추가보조 다

신천군북부면구동리(信川郡北部面舊洞里)산종화(申宗和)는 재 녕군재령면고산리(載寧郡載寧面 ...)

收穫의가을되자 支拂命令狀雪飛

海州法院에二十五日間二百件

—黃海農村의憂鬱相—

【海州】 수확의가을이되자 해주법원(海州法院)창구에는 지불명령독촉장이 속속제출되고잇다는데 지난시월일일부터 동이십오일까지의 이십오일동안에 제출된 지불명령건수는 무려이백건에달하는바 그중의배삼십여건은 대금업자(貸金業者)의것이고 칠십건은 금융조합(金融組合)의것이라한다 고 그의 아버지되는 진봉명(金鳳...)이 철귀열쇠를 내여 주엇든바 편한은 계속에잇든돈 을 모조리 조사하며 그중심원 짜리 지페를가지고 이것을회심 하 사전이라하며 압수하겟다하 기에에 천괴질로이웃나는 압수 이라한다 업스니 저의아들을 불러오라고 나간사이에 계속에들엇든 현금 이십팔원오십전을 통타가지고어 디로이지 종적을감추엇다는데이 급보를접한 개성서에서는 즉시 비상선을느리고 범인을 수사중 이라한다

開城에假刑事

現金廿圓을掠奪

【開城】 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경에 개성부내원정(開城府內元町)삼백구십이번지 김유영(金有英)(二七)의 쌀가게에 어떤양복입은(나이사십세가량)장년한명이낫타나 자기는형사인데 사건이잇는것을알고 조사하려왓스니 철궤를 열어보자고 하기에 때마츰주인되는 김유영은 외출하엿

救世療養院에— 또三千圓을寄附

肺病患者慈父賀藥氏

【海州】 소위망족적(亡族的)질병인폐결핵(肺結核)퇴치의관인 재단법인 해주구세료양원(海州救世療養院)원장 하락(賀樂)씨는동원에 산파역을 수행한다인데수 오늘의 공고한기초를 세우기까지에 재단법인이 완성되여 료양원이 계단법인이 완성되여 일천 동료양원리사회(理事會)에 서 면번도 하락씨 예산중 하는중 세입(歲入)에잇서서 약 일천여원이 부족되자 그부족액 일천이백원과 시가약이천여원되는 목장사무소건물(牧場事務所建物)십오평 합계삼천칠백원을통 료양원에 기부할것을 언명하엿다한다

財團法人을完成한海州救世療養院理事會員一同

百名收容目標코 分院新設等計畫

總工事費는五萬圓豫算으로

海州療養院理事會서

【海州】 해주구세료양원(海州救世療養院)에서는 재단법인 완성이래 처음으로 수일전 동료량원사무소에서 제일회 리사회(理事會)를 개최하고 장래확장방침등에대하야 토의한결과 평면도에 이번재단법인완성기념편찬(記念編)의 신축과아울러시외에 분원신설안(分院新設案)을 수립하얏다한다 중축과아울러 시외적당한장소를 택하야 환자백명을수용할수잇는 대규모의 분원(分院)을 신설게 획이라한다 그런데 당일리사회에서 다음의역원(役員)을 선정하엿다 理事長 賀樂 常務理事 金秉翊 監事 賀樂夫人 金鼎 ...

東草築港工事 二個年間延長

【大浦】 동해안에서 유수한항의 하나인 강원도속초(東草)항의 제일기공사가 근근준공을앞두 는동 로원에 삼년 기부할것을 ...

"收穫이虛無하니 小作料八割減"

【海州】 풍수재 도열병(稻熱病)등으로인하야 농작물의감수확의 수확이 전연업는때에는 소작료를 감면하라는 신판정(判定)이생기여 각방면에 충동을이르키고잇

"마라손"王孫君 鄕里新義州來着

翌曉先親墓前에奉告

【新義州】 마라손의왕 손긔정(孫基禎)군은 저난이십팔일밤 시사십분발 신의주역착 급행렬차(노조미)로 그리운 향리신의주에 도착하얏는데 역두에는 벌로한 손군의 어머니와 가족을 비롯하야 선의주체육회장 하(河昌洞)씨 손군의은사 리일 성(李一成)씨 제일공보동창회 강리항(姜利恒)씨, 제일공보교장 세궁(西宮)씨 평북체육회 주사 촌상(村上)씨 그외 선의주 체육회간부와 제일공보동창 생등 다수 출영리에 도착하야 그길로 곳 평안신사(平安神社)에 참배를한후 집으로향하야 손군 아기다리든 가족들과 하로밤을 지내고 여이십구일에는 벌로일 뜬기전에 어리다 변로한어머니 와 친형그만(基萬)씨 동반하야 도라간 부친의 령전에 개선봉 고를하러 부외 광성면(光城面)묘 저를찻고 오전열시반부터 선의주 체육회(新義州體育會)회장 탁창 하(卓昌河)씨의 안내로 도청을 비롯하야 관계각방면을 력방하 여 개선인사를맛치고 오후네시 부내 철도회관(鐵道會館)에 서 열린 다과회에렴 석하얏다 손군은 삼십일오후 신의주 를 떠나 상경 할 예정이엿스나 주의사정으로 말 미아마 부득이하 로연기하야 삼십 일일아츰 신의주 역발 급행차로 어머니와 고모님 과가리 상경할예 정이라한다

◇寫眞… 歸鄕한孫基禎選手와其家族一同

免稅額一萬圓

大田稅務署管內

【大田】 금번미증유의수재로 농작물이하 수확이 업는곳에는여 세(免稅)하기로된 대전세무서 (大田稅務署)는 그동안 조사를 거듭하야 나려오든바 이제야조 사가완료되야 대덕군북면(大德郡北面)구즉면(九則面)탄동면(炭洞面)회덕면(懷德面)연기군금남면(錦南面)남면(南面)동면(東面)서면(西面)조치원(鳥致院)등 십개면에 세액일만원을 면세하기로 결정되얏다는데 이것은 금년동안이라고한다

유병산(報山)재해우(義州)의 지 괴지구동리상의사상관계 ...

優良農村視察團

【公州】 금번충주군주최로 군내십육 면 면작유공면서기이십인을 선발하야 일본내지우량농촌을 시찰하기로되여 이십구일 아침여시 오십분발 렬차로 군농회장윤(尹忠儀)군기수삼정일상(三井一象)씨인솔하에 이주일예정으로 관민다수의 송별리에 출발하얏다 한다

地方人事

▲孫昌鉉氏(統營郡漁敎師)新任人事次 本報統營支局來訪
▲中島金門氏(咸陽警察署長)新任人事次 本報咸陽支局來訪
▲孫泰洙氏(前木浦警察署司法主任)順天警察署轉任人事次本報木浦支局來訪
▲佐藤重太郞氏(前木浦警察署高等係主任)道警察部轉任人事次同上

▲安藤利夫(木浦地方法院主任)新任人事次同上
▲及川正人氏(全南府道警察部保安課長)新任人事次本報光州支局來訪
▲文昌錫氏(長安第一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長安支局來訪
▲吉田寬氏(咸南警察部保安課長)新任人事次同上
▲柳川和氏(咸南鐵原水產技手)同上
▲大西由一氏(慶北警察署長)新任人事次 本報鏡城支局來訪
▲原田達氏(鏡城警察署長)新任人事次同上

愛慾의彼岸

【138】

李光洙 作　金康洙 畫

「인제는 해련이가 만폭동으로 나려올 때가 되엿는지도 모른 냥.」

어려한 생각이 강의 마음에 떠올랏다.

「어서 표훈사께로 올라가볼가.」

해련을 한번만 더 보고 죽을 까.」

이러한 생각도 낫다.

「죽기는 왜 죽어? 해련의 그 림자만을 안고 살수잇는 날까 지 살아갈까. 해련은 마음이 변 치아니할 사람.」

이러한 생각도 낫다.

갑자기 강의 마음속에는 세 의 욕망이 용솟음 치는듯햇다. 팔다리에 힘이 오르는듯햇다. 강은 벌떡 일어낫다.

는 의지력뿐이엿다.

영원함으로 가는 길과 멀고 대로 가는길이 갈리는곳에 이 르러서는 어디로 갈것인가 하 고 잠시 주저하엿다. 그는 수 련동으로 갈까하고 뵈야게 를 떠릇는 수련동을 내면서 길려 렷다. 그러나 그것을 보려갈 힘 도 업다고 생각하고 강은 바 로 영원함으로 올라갓다.

강은 노장에게서 흉강경을 얻어 러서 하로종일 흉강경을 읽엇 다. 그러나 잘머리 속에 들어 가지아니하엿다.

밤에 강은 여러 나제 개전 한개 바위스듬 우에 저지된심 리상태를 희복할수가 엇섯다.

강은 만폭동으로 가려라는 생 각으로 빠른 걸음으로 명경대 쪽으로 나려갓다.

얼마를 가다가 강은 우뚝 섯 다.

「아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강은 얼마간에 기피 내 천시자를 그렷다.

강의 몸불을 헤아리지아니하 는 리지력이발작되는것이엇다.

강은 밝은 이지도 가젓다. 불가튼 열정도 가젓다. 그리고 돌도 돌로 쇠도뚫는 의지력도 가젓다. 그러나 이 힘들은 서 로 조화되지못하고 상극이 되 엇다. 세 힘이 서로 화협해서 조화잇게 작용되엇더들 강은원 만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엇 슬것이다. 그러나 이 힘들이서 로 차와서 어느 순간에는 한 힘이다른 두 힘을 따려누이고 혼자서 전제적폭위를 부리기때 문에 그의 행동이 매양탈선적 이엇다. 광적이라고 세상사람의 눈에띄울만하게 엄청난 일을하 는것이엇다. 이것이 그로하여곰 세상에서 떨어지게하고 실패하 게하는 중요한 원인이엇다.

지금도 이러한 의지력이 발 작되는것이엇다. 그는 이 의지력 의 전제에 끌려서 밝이 어듸 를 밟는지도 모르게 영원동으로 도 철철 올라갓다.

강의 머리속에 아모 감정 도 분별도업고 오직 해련이가 잇는 곳과 반대방향으로 가자

그것은 생명에대한 애착까지도 일허버린 상태다. 강은 혼자빙 그레 우섯다.

강은 유서를 쓰라고 지필 내 어노앗다. 그러나 별로 쓸말이 업섯다. 해련에게 제가 죽는 이 유를 설명하고시픈 유혹도기펏 소나 다 고만두는것이 올라고 생각햇다. 다만 이 전에 페를 끼치지안차는생각으로, 자기자 살한다는 말과 자살하는 방법 은 스토아철인들 모양으로 아 모 외려도 빌지아니하고 (숨을 안 쉬어서 질식사를 취하노란 말과 시체는 화장에 부처서재 를 날려버리라는 말과 세상의 은혜를 기피 느끼고 결코 아 모도 원망하는 이가 업다는 말 과 그리고 최후는,

「나는 세상에서 살아서 아모 데 쓸데업는 인물이오 도로혀 내가 세상에 잇기때문에 깨끗 한 한 사람을 그르치고,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에게 더욱괴 로옴을 줄 염려가 잇슬뿐임으로 나는 이에 내 갓업는 생 명을 유효하게 버림 긔회를어 든것입니다」

하는 말들을 글씨 한 획 멸 리지아니하고 조리 정연하게, 아조 냉정하게, 거의 한 곳도 감정의 유로를 보임이 업시 썻 다. 나중에 정토과 전사가 보 고 놀라게도 무리가 아니엇다 그리고는 강은 반드시 자리에 두러누엇다. 죽으려는것이다.

高普에갈수업는분은 어떠케하면 成功하는가

高普卒業의 學力은 諸君의成功을約束하는 基礎學問이다中學의實力이잇스면 官公學校나實社會에서도相當히出世할수가잇다小學校의卒業만으로서는아니되다보라!勤勉하고正直한者라도 學問이업스면 學問이잇는後輩에게떠러저잇는그實狀을。中學校에갈수업는분은 斷然本會의 講義錄으로獨學하라中學校와同學의實力이잇는 滋味잇스리만치 記憶하기쉬운直感式講教授法이 朝鮮發見되엿다 僅少한會費와일하는余暇에 自宅에서 工夫할수잇는 講義式이여 詳細는案內書로 朝鮮日報에서보앗다 中學本會로 東京神田三崎町 中學會見本付契하라고申込하라 明書付見本無代送呈

당신은 便紙가

近日評判조흔……「手紙研究會」에서는新時代에適應한新書翰에依하야 短時日로便紙가熟練되어집니다 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 見本을請求하라」고 東京市神田區三崎町手紙研究會 에集書로申込하라詳細明書無代送呈

合理的이오興味가잇는길 펜字熟達法

펜字熟達은立身에第一必要條件이되다秀麗式練習法에依하면容易히바른書體正式히며短時日에日本文字、英字、數字等이 合當書하게써워진다. 只今곳「朝鮮日報上에서 보앗다」라고葉書로申込하라詳細한說明書를無代로送呈함 東京神田區三崎町日大通ペン習字研究會

學校에가본일업는 感心한少店員

어떤날東京神田書店에 外國人의客이왓섯다 英語를아지못하는主人과番頭가唐慌해잇슬째 店員의平吉君이外國人을相對하야 用件을말슴하엿습니다 그는마음이착한어린에로서 業務餘暇에잔돈을節約하야 實業講義錄으로獨學하야商業英語가 實際로使用이되엿슴니다 平吉君가티 學校에갈수업 가이시 僅少한 費用으로 事務짐함이 獨學으로商業과 實業學校와同學力을 엇든直 感式實業講義錄으로 工夫하는것이 第一조홉니다 將來에立身

成功을 바라는少年이여 念慮말고 藥書에다「朝鮮日報讀者이니 內容見本送付하라」고 申込하면無代送 東京神田三崎町二丁目帝國 實業學會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時代的電氣 醫療學全科

◎責任傳授

現代科學이나至世界的大發展의 電氣醫學의全科를短時日로責任 傳授함

今回는特히分院長으로서 獨立開業 卒業生은獨自開業의實力과資格을 本院普及하는곳이잇스니 하라

內容規則書無代呈

特別臨時講習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白粉下에는레-도크림을推奬합니다 흙늉히잘먹고조효므로衣服을더럽히지안습니다

清楚하고 그윽한日本髮의꽃 絢爛 豪華한新婦化粧에

넘치는艶麗美는 레-도의固煉으로 白色 肌色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經濟解說 産調答申檢討 産業開發의影響? 洪鍾仁

今般産調會가 朝鮮工業의 産業的地位를 確認하고 그를 行에 地方工業의 振興을 期한 것은 會合이다 이 調査會에서 論議된 條件으로 國策의 ... 가진것이 업는中 그中에서도 國策的意義가 重大하고 또事業自體에 잇서서도 價値가 重大히 論議된것은 所謂新興産業으로서 主要眼目이 되어잇는것은 一、鑛物資源及 動力資源에 關한것 二、工業에 關한것이라할것이다。다음에 重要한것으로 金融·交通에 關한것도 極히 重大한것이나 이것은 前者二項의 問題를 前提로 한것이라고볼것이다。鑛工業!「非常時日本」의 命題下에 ... 限한 朝鮮의 鑛工業의 ...

使命은 어데까지든지 國策上 指導的地位下에 强力的으로 短時日內에 ... 것이다。

×

아므로 어느期限內에 어떤 程度의 投資가 進行될것인가 는現今推測키 어려우나 何如間 大規模의 開發이 着手될것 만은틀림업을것이다。이에서 비로소 朝鮮産業界의 重大轉換을 이르키게 될것인데 이에 對해서는 積極과 方面에따라 여러가지로 影響할바 만흘것은 또한 틀림업는 事實이다 吾人은 答申案을 通하여 우리는 우선 아래몇가지 問題를 들수 잇다。

一、첫재 土地를 中心한問題 ...

[illegible]

輸出補償制度 海外市場開拓助成코저 總督府에서制定方針

總督府에서는 海外新市場을開拓助成키爲하야 近間輸出補償制度를制定키로되엿는데 그骨子는 大要如左하다한다

一、補償의主體 總督府(但必要에應하야 道及府도補償의主體가되게함)

二、被補償者 總督府의指定한金融機關

三、適用의範圍地域 市場開拓의必要가잇다고認할地方에對하야 總督이이것을指定함

▲商品=本法에서 生産又는加工한 一切의商品

▲手形=爲替手形으로서 總督이 指定한 銀行에서 買取한것에 限함

四、補償限度 日本內地의例를 參酌하야決定함

移出入貿易改善코저 商工獎勵館分館 東京等主要都市에新設

十億圓을 超하는 移出入貿易 改善伸展의促進을目標로 總督府에서는 日本內地個要都市에 商工獎勵館의分館을 漸次增設할計畫을樹立하고잇는데 먼저그候補地로서 東京 名古屋 下關 福岡 仙台 新潟을擧하고 實現을 期키로되엇다 更히 朝鮮物産協會를改組擴充하고 旣設의大阪出張所를비롯하야 前記商工獎勵館分館候補地와 同樣의 地點에出張所를設하고 販賣斡旋에 萬全을期할方針이라한다

自由市場繭 協會側不買

朝鮮內自由市場出廻繭에對해서는 各製絲業者가 自由市場의自然消滅策으로 協會의 協議에依하야 一齊히 買치안는 態度를 取하고 잇는것과 日本內地로 移出買賣가 되지안키때문에 各仲買業者는 이窮分離에 陷하여 잇다

發明獎勵助成 協會創立? 殖産局具體案硏究中

總督府에서는 各種産業開發促進의立場에서 發明의獎勵助成에 進出키로되엿는데 助成機關으로서 日本內地의 帝國發明協會支部를 朝鮮에設置할지 或은이와는別個로 朝鮮發明協會를組織하야 協會로하야금 特許便宜를圖케하고 或은發明을實用化하기爲하야 資本家에게 斡旋하는等의 事業을할터로 目下 殖産局에서 具體案을硏究中이라한다

米穀統制組合 組織完了 다음은米商組合

米穀自治管理의 統制組合設置는 各道에 百七十九組合이各 決定되어 道別聯合會도 咸北을除하고 十二個道에 設立케되엇스므로 各其 今月中에 ... 할터이나 總督府에서는 ... 第二次統制인 米商組合의 組織에 就하야 朝鮮穀物協會聯合會와 協議中이다 이것은 目下 ...

海港封鎖代案 英和兩國이提出

【倫敦二十九日發同盟】蘇聯代表의 葡萄牙海港封鎖에 對하야서는 葡代表가 二十八日의 不干涉委員會席上 斷然反對를 表明하얏슴으로 英和兩國代表는代案으로서 西班牙海港과 國境地點監視案을 提案하엿는바 提案內容은 如左하다

一、西班牙政府와 革命軍의 同意를得하야 軍需品輸入에 關하야 國境委員會를 設置함

一、委員會는 紛爭에 關係가업는 歐洲各國의 公正한 代表로서 構成하고 特히 軍需品陸揚에 有利한 西班牙各海港과 西班牙國境地點에 駐在케할것

諸委員會案은 右提案을 各國代表에게 通達하고 各國代表는 即時本國政府에 請訓하얏는데 回訓이 到達하면 不干涉委員會를 十一月二日再開하고 提案審議에 入하리라한다

朝鮮郵船에서 上海北中線强化

朝鮮郵船에서는 總督府에서 過般開催된 産業調査會에서 上海北中航路를 擴充하기로되엿는데 鑑하야 이에追隨하야 現在의 同兩航路를 擴充强化하기로되엿다

朝鮮水産創總 =資本金四十萬圓=

朝鮮水産株式會社는 三十日午後三時 中央物産會社樓上에서創立總會를열엇는데 이會社는 元來 中央都賣市場計畫에 衝動을 바더 처음은朝鮮人業者만으로組織된 海産物商組合을主體로 創立하랴하얏스나 其後 中央物産과의工作이잇고 또朝鮮人業者만으로는 設立키어려운關係도不無하야 資本金四十萬圓(第一回四分一拂込) 總株數八千株中 三千二百株는 中央物産에서 引受(他會社株를所持키爲하야 日前中央物産은 臨時總會에서 定款一部變更可決)하고 其外四千八百株는 京城을主로 仁川其他各地業者들이 引受한것인데 重役은社長은 中央物産社長田川氏로 專務에金正熙氏 常務에 安昌鎬氏外 一名이 就任되엇고 同會社의事業目的은 如左하다한다

一、水産物及同加工品의 委任販賣와買賣

二、前項에 關聯한業務

三、前項의業務를 營爲하는他會社의 株式을所有하고 或은出資함

朝鮮郵船總會

=朝鮮郵船에서는 三十日 午前十一時부터 同社에서 第四十九回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年五分配當案을 可決하얏다 (圓以下切捨)

當期利益金	一二〇、五八〇
一、前期繰越金	七五、九八一
合計	一九六、五六一
其中	
法定積立金	六、五〇〇
役員賞與金	一二、〇〇〇
株主配當金	九六、八七五
後期繰越金	八一、一八七

海運活況 ○…堀商船專務談

朝鮮郵船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三十日朝入京한 堀大阪商船專務의 海運界에關한말은 아래와갓다。 海運界가 果然어떠케 되어갈지알사람이업다 다만우리로서는이下期는 조금悲觀하얏스나 實際는 各航路가모다 荷動이 旺盛하야 豫想外의 活況을呈코잇다 就中 中國貿易은 中國內部의 農作物豊作에 依한 購買力의 旺盛에依하야 輸出 ...

水産課當面計畫 遠洋漁場開發、海難防止 水産講習所新設等

水産課에서는 過般의 産調會 答申에 關하야 그施設의 緩急을 硏究中이던바 水産課에서는 爲先 當面의 問題로 左의 三項에 關하야 豫算을 要하지안는것은 今年度부터 其他는 明年부터實行에 옴기기로되엇다

一、遠洋漁場의開發促進=爲先今年부터 着手하야 北洋漁業開拓과함께 南中國海 南洋에도 新漁場의 開拓을圖할것

一、水産敎育의充實=水産講習所를 新設하야 水産專門敎育을 普及할것

一、海難防止施設의擴充=特히漁船遭難事故의 根絶을期할것

鑛山繼續增産

商工省調査=今年 八月中의全國重要鑛山鑛産額은 左表와가티 前年同月에比하야 銅이一割九分의 減産일뿐이오 其他는모다 繼續增産을示하얏다

	八月中	前年比較(△印減)
金(瓦)	[illegible]	[illegible]
銀(瓦)	[illegible]	[illegible]
銅(噸)	[illegible]	[illegible]
石炭(噸)	[illegible]	[illegible]
石油(立)	[illegible]	[illegible]
硫黃(噸)	[illegible]	[illegible]
亞鉛(噸)	[illegible]	[illegible]
鉛(噸)	[illegible]	[illegible]
錫	[illegible]	[illegible]
硫化鐵鑛(噸)	[illegible]	[illegible]

米日爲替不變

【紐育二十九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야 買 二十八弗六十仙으로保合이오 賣 二十八弗五十八仙으로一仙低이다

東京爲替(三十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九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三十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九
	買	二十八弗八分五

仁川當限爆發 最終節百八十丁高 渡米蒐集難으로大活況 日本內地米豊作賣의罪

昨日 朝鮮仁川期米市場의當限納會光景은 近來에드문 壯觀한場面을 演出하엿스니 今期의當限은 二十九圓七錢에 初付되엿는데 四節〇六錢으로 入九節에十九錢 同價를보여比較的平穩裡에 納會될것으로豫想되든데 最終節에 이르러 ...

當限이 아니라 農家의 賣惜態度가 去益顯强하야 低價에는容易히 賣渡치안키때문에 드듸어渡米蒐集難으로 賣方側의 敗退가나와 連日暴騰하고 또結局 最終幕에 大活劇을 演出코 納會된것이다。이것은 이當限이 二十九圓八十九錢에 發會하야 上場될는 三十圓五十六錢에바 겟못갓스나、第一回豫想發表後 九月五日新穀에는 二十六圓六十一錢이란 低價를 보엿다가 反騰하기시작하야 二十七圓臺를 回復하기는햇스나 ...

日本內地豊作

廿六日에 廿八圓臺로 昨廿九日後場에 廿九圓臺로 上進하야 結局 三十圓九十九錢의 高價로 納會되어 價에서 實로四百三十八丁高 ...

高價엔利喰賣

[illegible]

經濟寸鐵

○ 海外新市場開拓助成코저 輸出補償制度、移出入貿易伸長改善코저 商工獎勵館分館新設計畫 發明獎勵計畫等 躍進朝鮮産業에 催進的獎勵施設

○ 박그로 伸長은 勿論賛成할일이지만 안살림을 좀더어울리게하야주소

○ 京城食料品會社는 東洋氏를끼고 朝鮮水産會社는 中央物産을기대고

○ 資本을 半쯤 주리고라도 單獨으로해볼수는 업는모양

○ 自立之心이 업는때문인가? 計畫始初는 그러치를안느니만…

商況【三十日】

株式 揉合이나 强調

前場閑散

今前場은 東新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産八十四圓八十錢 朝新三十六圓五十圓에各其寄付하엿스나 東新은 高價買는 警戒될뿐아니라 利喰賣物도 잇서 閑散裡에 不勢商狀을 보여 東新百四十圓八十錢日産八十四圓二十錢 大新七十二圓二十錢에 各其大引되엇다

後場堅調

後場은 東新百四十一圓四十錢 日産八十四圓五十錢 朝新百七十九圓十錢으로 大引하야 商狀頑强하엿다

米期 實勢頑强 上放

東新의罫線觀

[illegible]

今日財界 (十三日)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 東京國債市場 /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少押後엔反撥 步調依然强硬

[illegible]

當限의最終幕 結局買方...

[illegible]

受渡단四百石 朝取期米取組內容

受渡石數 四百石 受渡價格 二十八圓四十錢

[illegible]

群山强硬 / 木浦堅調 / 大邱閑況 / 釜山同調 / 仁川非騰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康益夏商店 米 仁川 株

土金 分析 賣買 石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 電話本局二三一一 振替京城一五一五

商況 各種相場表 (三十日)

[illegible]